

세대통합목회, 교회 위기 극복할 킹핀(King Pin)

본지 주최 세대통합목회 세미나 성황리 마무리

본지 주최 세대통합목회(사역)세미나가 20일(화) 오전 10시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광신대학교 김경윤 총장, 목포 창조교회 담임 서인석 목사가 강사로 나서 '삼대동일신앙으로 명문가문을 이루자'(신6:2)를 주제로 강의했다.

국윤권 목사의 환영인사와 함께 시작된 1강은 World Share USA 대표 강태광 목사가 진행하고 기쁜우리교회 담임 김경진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됐다. 김경윤 총장은 “삼대동일신앙이란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대를 이어 가야 한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불변하시며



본지 주최 세대통합목회(사역)세미나가 20일(화) 오전 10시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에서 개최됐다. ©기독일보

연약에 신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다”라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동일

신앙을 가졌다.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 동일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삼대동일신앙에서 무엇이 동일해야 하는가? 김경윤 총장은 “신앙 고백이 동일해야 한다,

예배가 동일해야 한다. 삶의 도리가 동일해야 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동일해야 한다.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이 동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2강은 GMU 박사원 이병구 원장이 진행하고, 주은혜교회 담임 최호년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됐다. 2강에서 김경윤 총장은 '삼대동일신앙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김경윤 총장은 “1차로 사도신경, 예배, 심계명, 주기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이 영혼을 비추면, 죄인 된 것을 깨달아 회개하게 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된다. 이런 신앙고백이 있어야 신앙이 있을 수 있다. 이 고백 중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강조했다. 앤더슨 김 기자 →3면에서 계속

美 민주당, 주한미군 철수 반대 및 대북 공조 강화 천명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긍정 평가 및 계승 의지 피력

미국 민주당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한국과의 대북 공조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는 18일 발표된 91쪽 분량의 정강(platform)을 통해 공식화됐다.

민주당은 정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능력 증강을 포함한 도발에 맞서 우리 동맹국들, 특히 한국의 편에서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강은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의 정책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여겨진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 ©페이스북

에 대해 민주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안정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노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일본과의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윤식 기자 →2면에서 계속

비와이 LA 콘서트 with 러빙워십, 'Movement IX'

복음을 담은 랩으로 청년들에게 공감대 이끌어

‘교회에서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수하는데 교회가 실패했다’, ‘초교령화, 교회의 빠이픈 현실’, ‘다음세대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 희망 없다’ 같은, 다음세대 복음화를 향한 암울하고 절망적인 진단이 가득한 가운데, 청년 복음화를 위해 오랫동안 함께 무릎을 모으고 기도해 온 단체가 있다. 러빙워십이 주최한 비와이(BewhY)의 콘서트 ‘무브먼트 IX’는 이들의 오랜 기도와 소망의 합작품이었다.

8월 17일 오후 7시 노보 극장이 위치한 LA 다운타운 피게로아 거리에는 많은 청년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주디 한 기자 →3면에서 계속



8월 17일 오후 7시를 앞두고 LA 다운타운 노보 극장(The Novo)에서 비와이의 공연 '무브먼트 IX'가 열렸다. ©러빙워십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러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태양광, 솔라!!
 2024년 내막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Getaway Sales Event**

0% APR Financing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Ioniq 5 ONLY)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Months

NEW 2024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4 HYUNDAI Ioniq 6 SE RWD
NEW 2024 HYUNDAI Tucson Hybrid SEL Convenience AWD
NEW 2024 HYUNDAI Santa Fe Limited

Lease Special
NEW 2024 HYUNDAI Ioniq 5 SE RWD
 \$179 / Mon + Tax
 12,000 mile/year
 For 24 Months
 \$4,995 due at lease signing
 MSRP \$47,805
\$13,000 Lease Cash Available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LAKMA 콘서트 성료, 평화와 희망을 위한 기도는 계속된다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서 '우정과 하모니' 주제로

라크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 코랄(LAKMA Symphony Orchestra & Chorale, 대표 최승호, 음악감독 윤임상)이 8월 18일(토) 오후 7시, LA 다운타운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우정과 하모니의 연합"(Friendship & Harmony)이란 주제로 평화음악회를 개최했다.

이 날 공연은, LAKMA의 최승호 대표의 인사로 문을 열었다.

"오늘 밤의 콘서트는 매우 특별하다. 평화를 향한 열망과 진정성과 절박함은 최근의 기억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오늘 밤 라크마의 음악을 통해 평화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이며, 전 세계 무고한 전쟁 희생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것이다."

1부는 로시니(Rossini)의 오페라인 "윌리엄 텔"의 서곡 피날레(William Tell Overture Finale)의 익숙하고 친숙한 멜로디로 시작됐다. 이어서 로시니가 중세 찬송가를 각색해 작곡한 "스타바트 마테



라크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 코랄 (LAKMA Symphony Orchestra & Chorale)이 8월 18일(토) 오후 7시, LA 다운타운 월트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우정과 하모니의 연합"이란 주제로 음악회를 개최했다. ©기독교일보.

르"(Stabat Mater, 슬픔의 성모 혹은 성모 애가) 중 "가슴 속 깊이, 그의 서러움을 함께 하며"(Cujus animam)를 테너 오위영이 불렀고, 쉰들러 리스트의 테마 곡(존 윌리엄스 작곡)을 노린 그린 박사(Noreen Green)의 지휘 아래 바이올리니스트 마크 카슈퍼(Mark Kashper)와 라크마가 협연했다.

Edward Hosharian의 "마리암"(Mariam)을 Greg Hosharian

이 지휘하고 소프라노 나탈리 뷁키안스(Natalie Buiickians)가 불렀고, Lorna Katz의 작곡한 곡 "평화"(Peace) 연주에 이어, 백남금이 작곡한 "강강술래"를 이화동(대금, 전북대 교수), 박상윤(대북, 남가주사랑의교회의 사랑 챔버 오케스트라), 이주아(장구, 중앙대 전통 타악기 전공)가 함께 연주했다.

더글라스 애즈베리 목사(연합감

리교회)의 기도으로 시작된 2부에서, 윤임상 감독이 브람스 레퀴엠 전곡을 연주했으며, 신수미 소프라노와 바리톤 로드 킬프리가 함께 했다.

윤임상 감독과 LAKMA는 삶과 죽음 구원과 영원한 평화라는 진지하고 엄숙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서정성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브람스의 레퀴엠 연주를 통해 청중들에게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감정적 공명을 이끌어, 관객

들의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특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계 14:13)라는 말씀을 주제로 한 마지막 악장은 레퀴엠 전체에 스며든 위로와 희망을 재확인하며 죽음을 넘어선 희망의 세계를 선사했다.

이날 16개 다민족으로 구성된 75명의 합창단과 65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참여해 문화와 종교를 넘어선 하모니를 선보이며 문화와 종교의 장벽을 넘어선 평화와 우정의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했다.

라크마(LAKMA)는 2010년 결성된 캘리포니아 주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다문화 음악인 단체로 음악회를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여러단체와 학생들에게 나눔과 후원을 실천하고 있다. 2012년부터 매년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조셉 리 기자
LAKMA 웹사이트: theLAKMA.org/

GMU, 신앙계승을 위해 11개 교회와 MOU 체결

그레이스미션대학교(최규남 총장, 이하 GMU)는 다음세대 신앙계승을 위한 Nurturing Children Initiative(이하 NCI) 프로젝트를 위해 Lilly 재단으로부터 125만 달러의 연구 지원금 승인을 받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미국 내 한인 이민교회들과 협력하여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부모세대와 다음세대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세대통합 예배라는 예배 모델을 제시하며 세미나와 강연을 진행해왔다.

지난 8월 12일 같은 비전을 가진 11개 교회(생명의길교회·곽태규 담임목사, 세계대교회·김도일 담임목사, 브릿지교회·김재호 담임목사, 어노인팅교회·남상권 담임목사, 라이트하우스얼바인교회·왕상윤 담임목사, 갈릴리 은혜교회·이광세 담임목사, 주님의교회·최훈 담임목사, 생수의강선교회·최현규 담임목사, 갈보리사랑교회·허평강 담임목사, 나



다음세대 신앙계승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는 8월 12일 같은 비전을 가진 11개 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기독교일보

들목비전교회·권도근 담임목사, 아미쿠스장로교회·이신일 담임목사)를 선정,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에서 파트너십 세미나 및 MOU체결식을 진행했다

최규남 총장의 기도로 시작된 파트너십 세미나에서는 19년간 달라스 나눔교회의 담임목사로 섬기며 은퇴하기 전까지 세대통합예배를 통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온 안지영 목사를

주강사로 초청해 세대통합예배의 실천과제와 현실적인 고민들을 참여자들과 함께 나누었다.

강연을 통해 안지영 목사는 세대통합예배는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공동체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분명한 목회철학을 가지고 성도와 교역자들에게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GMU안송주 학장은 올바른 세대통합예배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어린 자녀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교육적 의의에 대하여 강연을 하며 실천적 가이드를 제시했다

2부 순서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에 파트너로 참여한 11개 교회들과 보다 현실적인 소통을 위한 그룹토의와 MOU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MOU를 통해 GMU는 11개 교회에게 일정기간 재정 지원과 세대통합예배와 다음세대에 대한 연구자료 공유, 예배를 위한 미디어파트 솔루션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GMU는 이번 MOU를 시작으로 11개 교회가 세대통합예배를 준비하는 과정과 그 가운데 경험되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들을 다큐멘터리로 제작, 기독교 언론사와 한인교회에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민선 기자 문의: (714)525-0088, admissions@gmu.edu.

→ 1면 기사 <美 민주당, 주한미군 철수 반대...>에 이어서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트럼프는 이 지역에 다른 접근법을 취했는데, 김정은을 정당화하고 아첨하고 북한의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교환하며 미국을 당혹스럽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가 무역 분쟁을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를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정강 발표를 통해 민주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과 차별화를 꾀하며, 향후 대선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 국제 정세 전문가는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양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접근법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와 외교 당국은 미국의 정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도서 말씀 묵상

오형원
전도서 말씀 묵상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

판매가격 \$20

지은이 : 오형원
출판사 : 도서출판 대장간

[신간]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

영혼 깊은 곳, 정곡을 찌르는 약손 같은 생명의 말씀

전도자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일성으로 화두를 던집니다. 허무를 말하려는 것이 그의 의도는 아닙니다. 전도자는 역설과 반전이라는 독특한 화법을 통해 세상은 알 수 없고 그래서 줄수 도 없는 그리스도, 그 희망을 노래합니다.

도서주문
도서구입문의(미주지역) : ☎(657)631-8775(담당자 헬렌)
온라인 주문 : 평생교회(lifetimechurch.us) 홈페이지에서 가능

책 구입처
복음사(OC) ☎(562)865-4949
기독교서적센터(LA) ☎(323)737-7699

“저는 제가 별인 줄 알았는데……”

→1면 기사 <비와이 콘서트...>에 이어서

공연 시작 1시간 전인 6시부터 노보 극장 스크린에는 러빙위십과 이 공연을 후원한 협력 교회들이 제작한 영상이 상영됐다. 극장 최대 수용인원인 1천 5백 명으로 극장이 가득 찬 가운데, 비와이의 첫 번째 곡 'Birds Eye-Vu'의 전주가 흘러나왔다.

“네가 달을 쫓겠과 꿀 흐르는 약속의 시대일 테니 널 바꾼이의 이름 위에 우리 이름이 넘나들고”.

이어서 비와이는 “The Time Goes On”, ‘Holy ghost is coming down. Kneel’, ‘Holy Toast’, ‘초월’, ‘가라사대’, ‘Day Day’ 등 30곡을 부르며, 2시간 반 동안 자신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녹여낸 가사들을 쉴새 없이 쏟아냈다.

“세상이 할 수 없다는 걸 난 이렇게 불러 가능성……내 미래를 이미 이룬 듯 믿을 수 밖에 난 모든 걸 걸었기에 내 삶은 바로 신이 만들 예술 작품의 Featuring 나로 인해서 쓰여지는 위대한 history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His story” “The Time Goes On”

“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무릎이 이끄는 신 세대가 부흥 일으켜... 주가 베푸신 상이 사랑으로 자유케 돼 압도당해 열방이 심판 대신에 구원” ‘Holy Ghost is Coming Down. Kneel’

“새 역사는 다시금 써지네 내 발자취로 산 증인의 삶 그 삶을 위한 권능을 원해... 난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원의 것

을 영원히 따라” ‘Forever’

대중 음악 가수인데, CCM과는 또 다르게 자신이 믿는 바의 신앙을 가사 곳곳에 심어 놓았고,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한데도, 신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그의 음악에 환호했다. Troy Choi(최경태, 라라랜드 월드투어 쇼) 공연 감독이 스크린과 조명으로 빛어낸 이미지와 효과는 몰입을 도왔다.

비와이는 공연 중간에 자신이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해서 나왔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착했던 시기가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저는 버려져서 지옥 갈 놈인데 (이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관객석에서 ‘아냐!’라는 외침이 흘러나왔다.) 저는 제가 별인 줄 알았다. 스스로 빛나는 자체발광하는 존재인 줄 알았다. 3~4년 지나고 보니, 원래 나는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는 놈이다. 저는 제가 빛 쫓 되는 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는 별이 아니고 달이었다. 달은 그냥 돌덩이다. 달을 그냥 보면 못생겼다.(이번에도 관객석에서 ‘아냐!’ 라는 외침이 나왔다.) 달이 왜 잘 생겼는 줄 알아요? 태양이 있기 때문이다.”

비와이는 힙합음악의 반기독교인적인 성향에 대해, 또 그럼에도 힙합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말했다.

“힙합의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굉장히 아쉬웠지만 그것을 보는 제 심정은 부럽고 멋있었다. 그래서 ‘뒤집어져 있는 십자가를 다시금 뒤집어 놓자’ 는 전략을 세웠다. ‘악의



비와이는 30곡을 쉴새 없이 쏟아내며 공연하며, 반기독교적인 힙합 문화를 보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뒤집어 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기독일보

스 무브먼트(IX Movement)’에서 ‘IX’는 로마숫자로 9이다.(그는 계시록의 666에 반대되는 의미로 숫자 ‘9’에 의미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나오는 음악에도 이런 것들이 묻어 있지 않을까.”

비와이의 공연이 끝나자 조셉 리목사는 “나이 든 분들은 알 것이다. 예수가 없이는 안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으로 책임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외침으로 공연을 마무리했다.

이번 공연을 주최한 러빙위십은 예배, 멀티미디어 사역, 크리스천 비즈니스, 문화 선교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초교파 연합 단체로 지난해 2023년 제이어스와의 연합 공연 <예수아>의 연속 선상에서 이번 비와이 콘서트를 개최했다.

러빙위십은 “이번 공연에 믿는

이들 뿐 아니라, 비기독교인 2백 명이 왔다. 러빙위십에서 팀을 짜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교회로 연결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셉 리목사는, “비와이가 음악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되었다. 에서 ‘IX’는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즉 예수 운동이란 의미이다”라며 이 콘서트를 준비하며 비와이와 나는 대화에 대해 말했다.

“비와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성공한 연예인을 보았다고 한다. 자기가 우상이 되고 어느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 없이는 나아

갈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었기에 노래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콘서트는 ANC 온누리교회, LA 동부 사랑의교회, LA 온누리교회, Soon Movement Global (KCCC), 남가주 사랑의교회, 나성영락교회, 베델교회, 은혜한인교회, 새생명비전교회, 충현선교교회, 토렌스 조은교회, 토렌스 제일장로교회가 협력했다.

러빙위십은 이 예수 운동을 12월 13일~14일에 LA MIRADA 극장에 서열릴 ‘힐링 토크 뮤직 콘서트’로 이어갈 계획이다.

힐링 토크 뮤직 콘서트에는 조셉 리목사를 비롯해, CBS <새롭게 하소서>의 MC 주영훈, 박요한 목사, 가수 송지은(전 시크릿 멤버), 박위 형제(위라클 Weracle) 조범진 교수(서울신학대학교 실용음악과)와 스페셜 게스트가 함께 할 예정이다.



러빙위십의 스태프들이 발로 뛰며 이번 콘서트를 홍보하고 준비했다. 이들은 이번 콘서트에 온 비신자 200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독일보

→1면 기사 <세대통합목회, 교회 위기 극복할 킁핀>에 이어서

김경운 총장은 “이러한 고백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기도를 통해 응답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김 총장은 “2차 교육으로는 스토리가 있는 세대 통합 경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구축사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교육하고, 3차 교육을 통해 구약과 신약 전체 66권을 권별로 알게 교육하라”고 당부했다.

▶세대 통합 예배에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메시지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어

야 하며 아이들의 집중력에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란 질문에 대해 김 총장은 “장년에게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면 된다. 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장년의 신앙이 다 다르다.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말씀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 그러면 놀랍게도 아이들도 말씀을 다 이해하고 받는 은혜가 다 있다”고 답했다.

▶언어적 장벽 어떻게 해결하나?

이민교회 내에서의 이중 언어가 세대통합예배의 큰 걸림돌이 되는 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유대인의 교육을 보면 모국어와 현지어,

영어 세가지를 가르친다. 그 중에서도 모국어가 가장 먼저이다. 이미 언어가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모국어 교육을 철저히 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3강은 LA씨티교회 담임 써니김목사의 기도로 시작됐다. ‘삼대동일 신앙의 실제’를 제목으로 강의한 서인석목사는 목포 창조교회가 어떻게 삼대동일신앙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했다. 서인석목사는 “벌목공들이 아마존에서 나무를 운반할 때, 나무들이 물줄기를 따라 이동하다가 구부러진 곳에서 걸릴 때가 있다. 이때 한 나무만 건드리면 모든 나무가 다 다시 흘러간다. 이런 것을 불링용어 중 킁핀이라고 한다. 공을 아무리

세계 던져도 이 킁핀을 치지 않으면 스플릿이 나서 오히려 문제가 어려워진다. 목회에 있어 이 킁핀과 같은 것이 바로 삼대동일신앙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인석목사는 “목포 창조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대를 이어 평생토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준다는 세대통합목회 사명선언문을 가지고 전세대 통합예배, 스토리가 있는 경건 훈련, 전 가족 가정예배, 가족이 함께 말씀 나누기, 부모가 자녀 제자삼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인석목사는 “세대통합예배의 목적은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고 대를 이어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전 세대가 신앙적으로 세대차가 나지 않게 하는 것 등으로 세대간

시간, 장소, 모든 세대, 설교, 성경, 찬송가, 기도 통합을 이룸으로 현대교회 문제점을 극복해 가고 있다. 그 결과 교회를 방문한 강사들이 놀랄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주일 아침예배부터 오후예배까지 참석하고 있으며 세대차가 현격하게 좁아졌다. 또 어린이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부모님들과 교회 장년들 또한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경건생활이 달라지는 결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김영일 목사(더 섬기는교회 담임)가 ‘다음 세대를 살려주소서’, 조인 목사(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 담임)가 ‘청교도 신앙을 회복시키소서’, 이근창 목사(발렌시아샘물교회 담임)가 ‘교회를 회복 시키소서’를 주제로 합심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창립 2주년 감사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임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크렌셔장로교회가 창립2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부디 오셔서 함께 은혜와 기쁨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충성된 일꾼을 세우고자 하오니 많은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8월 25일(주일) 오전 10:30
- 장소 :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 LA, CA 90019
- 문의 : 한현중 담임목사(213-407-1600)



한현중 목사

명예장로 추대 : 김준기, 박정준 / 서리집사 임명 : 오순자



크렌셔장로교회
CRENSHAW PRESBYTERIAN CHURCH

남가주 교계 연합 광복 77주년 기념 예배

8.15 광복절 감사 예배 및 찬양제, 나성영락교회서 개최

지난 8월 11일(주일) 오후 5시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에서 LA와 OC교계가 대한민국의 광복 79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나아갔다.

제79주년 기념 '8.15광복절감사예배 및 찬양제'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기독교전도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남가주 여러 교계 단체가 동참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광복절 기념행사는 1부 감사예배, 2부 기념식, 3부 찬양식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샘신 목사(남가주교협수석부회장) 사회로 진행된 1부 감사예배에서 최학량 목사(이승만 기념 사업 회장) 기도, 이원석 목사(오렌지카운티 목사회 회장) 성경 봉독에 이어서 송정명 목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송 목사는, "OC 교협, OC 기독교 전도협의회, 남가주 교회 협의회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하다"며,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를 일제 침략기와 연결해 설교했다. 그는 1905년 을사조약,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皇城新聞)>에 올린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이날에 목 놓아 통곡하노라)',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으로 이어지는 수난을 설명한 후 1919년 3.1운동, 해외교민들의 조국의 독립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1903년에 하와이를 건너 왔던 노동 이민자들이 갈 곳을 잃어버렸다. 그 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독립 자금을 모으면서 임시정부로 저들의 마음들을 보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남자 노동자들이 하루에 69센트로, 여자들은 65센트를 받아서 한 달 월급이 16 달러였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조국이 주권을 빼앗겼다는 사실에 너무 통탄하고 분하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해서 그들을 도



8월 11일 오후 5시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에서 LA와 OC교계가 제79주년 기념 '8.15광복절감사예배 및 찬양제'를 연합으로 개최했다. ©기독교일보

왔다"며 이 역사를 잘 기록하고 바로 알리기를 당부했다.

그는 3.1 운동 후 제암리 학살을 비롯해, 일제의 학살이 더 잔인해졌던 사실과, 대한민국의 해방을 가능하게 한 미국의 원폭 투하에 대해 언급했다.

"제암리 감리교 성도들에게 교회에 모이라고 광고를 하고 교회당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밖에서 못을 받고 불을 질러 학살했다. 일본은 야욕을 확대해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자, 미국이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했다.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선언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해방,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역사

송 목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해방되었듯 대한민국의 해방 역시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광복의 소식에 사람들이 어떻게 환호하며 기뻐했는지 묘사했다.

"은 백성들이 집에 있던 태극기를 들고나와 목이 터져라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독립 만세를 할 때에는 서로 끌어안고 서로 만세를 부르며 격려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귀한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광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시킨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한인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며, 복녘땅 공산 치하에 있는 동포, 동족들의 자유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권영신 장로(남가주교협부회장) 헌금기도, 조준석 목사(남가주교협 음악부장) 특송 "주님과 함께", 최영하 목사(남가주교협 총무) 광고, 한기형 목사(남가주교협증경회장) 축도로 1부 예배를 마무리했다.

2부 기념식: 남가주교협, OC교협, OC전도연합회, 대한민국민회 기념재단, 3.1여성 동지회 등 축사

바로 이어진 2부 기념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및 '미국국가' 제창 (이사효 지휘)에 이어 최영봉 목사(남가주교협회장)가 환영사를 전하고, 심상은 목사(OC교회협의회 회장), 신용 집사(OC전도연합회 회장), 클라라 원 이사장(대한민국민회 기념재단), 정해진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 캐롤 리 회장(3.1 여성 동지회)이 축사했다.

최영봉 목사(남가주교협회장)

는 환영사에서, "광복을 생각하면, 어두웠던 과거도 생각한다. 예수 믿는 자들은 과거에 얽매어 살아가지 않으며 미래를 준비한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로 훈련시켜 주셨다"며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문화의 성취 뒤에 신앙이 바탕이 되었음을 이야기했다.

심상은 목사는 축사에서 "광복은 독립선언문에서 시작되었다. 독립선언서에서는 우리들의 무능력을 반성하고 새 마음으로 새 세상을 건설해서 참담하게 무너진 민족의 양심과 국가의 위신을 다시 세우고 자손들에게 안전한 행복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독립이 필요하다고 천명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서 대한민국의 광복이 남녀노소, 신분, 지위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큰 기쁨이었다고 말했다.

"광복절에는 남북도 없었다. 이념도 종파도 그리고 지역 갈등도 진보도 보수도 우파도 좌파도 남녀노소도 없었다. 모두가 손을 잡고 춤을 추며 목청이 터지도록 만세를 부르면서 광복의 순간을 감격했다."

신용 집사는 "해방, 광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의 뇌리에 떠오르는 단어는 용서"라고 했고, 정해진 목사는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지금까지 매년 8년마다 기

념 행사를 이어왔으나 올해 기념식은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OC 기독교 교회 협의회, OC 기독교 전도회 연합회가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하게 되어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축사했다.

2부 순서는 김준배 회장(광복회 미남부 지회장)의 선창으로 만세 삼창을 한 후 지경 교수(무궁화 합창단)의 선창으로 광복절 노래를 부르며 마무리했다.

3부 "빛을 되찾아주시는 그날을 기념해서 연합"

윤우경 권사(OC전도연합회 회장)가 진행한 3부 순서에서는 무궁화 합창단(단장: 강성희 권사, 지휘: 지경 교수)의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과 '세상으로 나아가라', LA 연합감리교회 성가대와 조이어스합창단(단장: 이계선 목사, 지휘: 이사효 전도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와 '성령의 힘으로', 도산퀴벳(심요섭, 최원현, 오정목, 김경태)의 '평화의 나라'와 '애국행진가', KCBC합창단(단장: 조준석 목사, 지휘: 김수경 교수)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과 '주의 은혜라', LA칸투스(지휘: 김철이 목사)의 '오 기쁜 날'과 '확실한 나의 간증', 남가주장로성가단(단장: 한경환 장로, 지휘: 장진영 집사, 1992년 교파를 초월한 20여개 교회 장로들 25분이 모여 창단)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와 'Soon and very Soon' 공연이 이어졌다.

윤우경 권사는, 무궁화 합창단에 대해 93년도에 시편 142편 2절 말씀을 바탕으로 시니어 여성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어, 매주 월, 금 오전 10시 세리토스 선교교회에서 연습하고 있다고 소개했고, LA연합감리교회는 LA에 최초로 생긴 한인교회이며, 조이어스 선교합창단은 올해 4월 16일에 창단되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 곡을 부른 남가주장로성가단의 공연에 이어,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할렐루야'를 부르고 민경엽 목사(OC교회이사장)가 폐회 축복기도 후 기념촬영으로 대한민국 광복의 의미를 돌아보는 기념 행사를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교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태양광, 솔라!! *** 전기세 50~90% 절감 ***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Lic#854389

2024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www.btssolardesign.com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시오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센터메디컬그룹 창립 10주년 감사이벤트모아보기



무료 건강세미나



김학준 주치의
노후준비 건강 세미나



임유일 주치의
통증/고혈압/당뇨 세미나



조이스리 주치의
요실금/오줌소태 세미나

다양한 주제의 무료 건강세미나를 개최하여 시니어들이 건강한 삶과 노후 준비를 하도록 주치의들의 열띤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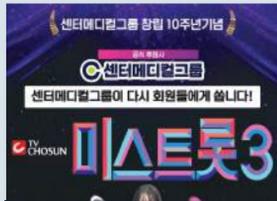
문화 혜택 지원



3.16.토
세시봉 콘서트



5.18.토
볼타는 트롯맨 콘서트



10.13.토
미스트롯3 콘서트

센터메디컬그룹 회원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문화공연 티켓을 후원하여 무료 티켓을 지원

스포츠대회개최



4.10.수
시니어 무료 당구대회



4.25.목
시니어 골프대회



9.12.목
시니어 무료 탁구대회

시니어들의 활기찬 삶을 위하여 스포츠 대회를 개최,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푸짐한 경품증정

무료일일관광



4월 꽃놀이 (4회)
랑캐스터 파피꽃 필드
칼스배드 꽃놀이



7.30.화
미션 산 후안 카피스트라노



7.31.수
게티빌라

다양한 곳을 체험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경험을 위하여 무료로 일일관광과 식사와 차편 제공

무료사진관



5월 매주 화/목
무료 가족사진 촬영



6월 - 9월 매주 금
무료 독사진/부부사진

그외 특별 행사



2.1.목
센터메디컬클리닉 2호점
가든그로브점 개원



5월
무료 모바일 유방암 촬영



7.18.목
가든그로브 마당잔치

법원,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처분 취소' 소송 각하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해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해당 징계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21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으로부터 지난 2022년 받은 '정직 2년' 징계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목사의 정직 기간이 이미 만료됐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주장에 대해 "상당 부분이 기감의 교리 해석과 관



과거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노회 재판위원회 결심공판에서 출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갖는 이동환 목사.

계없이 판단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직접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아니며 원고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

이어 "(원고는) 정직 2년 기간이 만료됐으며, 출교 판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출교는 정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정직 판결이 출교 판결 무효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됐지만, 종교적 자유를 위해 설립된 종교단체의 조직 운영과 규정에 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처벌 규정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축복 기도

가 동성에 찬성 행위로 객관적으로 포섭될 수 있어 위법하게 처분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인천퀴어 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지난 2020년 기감 경기연회에서 정직 2년의 처분을 받았던 이동환 목사는 항소 끝에 지난 2022년 10월 기감 총회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정직 기간 동안 다시 저지른 동성에 찬동 혐의로 또한 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후 이 목사는 지난해 12월 기감 경기연회에서 출교 판결을 받았고, 지난 4일 기감 총회재판위원회에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면서 출교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노형구 기자

예배 중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해야 할 7가지 이유

교회 성장 전문가 톰 레이너 박사, '처치앤서즈' 조너선 하이트의 '불안한 세대' 언급

미국 교회 성장 전문가인 톰 레이너(Thom S. Rainer) 박사가 웹사이트 '처치앤서즈'(churchanswers)에 '예배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첫 번째 이유로 그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종종 사람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 매주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교인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알람이 뜨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그들은 알람을 빨리 읽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다른 사람들도 산만하게 만든다.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빛이 반짝이면 나도 즉시 그쪽에 눈길

이 간다"고 했다.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에는 중독성 있는 콘텐츠가 있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내 주장이 의심스럽다면, 직접 조사를 해보라. 예를 들어, 조너선 하이트의 '불안한 세대'(The Anxious Generation)를 읽어 보라. 스마트폰의 소셜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마음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 그의 연구를 살펴보라"고 제안했다.

레이너는 "Z세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소셜 미디어 접속하고 기타 유해한 사이트가 접근하기 시작한 이후 불안, 우울증, 자해 및 자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



©terimakasih0/ Pixabay

라. 솔직히 말해서, 나는 교회에서 스마트폰을 읽음으로써 스마트폰의 습관적 사용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비치기를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 이유로 그는 "대부분의 교회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없어도 예배 중 성경을 읽거나 메모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

한다"며 "나는 목회자들이 자주 설교하는 번역본으로 된 좌석에 비치하도록 권장한다. 성경 본문을 화면에 띄울 수도 있다. 주보에 설교 개요를 넣는 것도 간단하다.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실에 펜을 비치해 둔다"고 말했다.

이어 "글쓰기가 키보드 사용보다 기억력을 높인다. 손으로 필기

하면 설교에 더 집중하고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기억하게 된다. 참고로, 여러 교인들이 필기를 하기 시작하면 목회자는 힘을 얻을 것이다"고 했다.

또한 "스마트폰은 고립감을 만든다. 예배 모임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메모하고, 설교를 듣거나,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등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폰은 우리를 공동체가 아닌 고립 상태로 만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인들이 예배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잘못된 우선순위를 전달하게 된다. 비록 우리가 성경 본문과 설교에 집중하더라도, 다른 교인들에게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유진 기자

[서평] 자이언 캐년에서 눈물이 나다

릭 워런 (Rick Warren)목사는 사람의 생각이 손끝과 혀끝에서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사람의 생각은 말하며(혀끝), 또 글을 쓰며(손끝)에서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그의 말에 100% 공감한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 사람의 생각은 눈 끝(독서)에서도 성숙해진다.

말은 조금 위험하다. 감정과 상황의 변화로 정제되지 않은 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글은 정제되고 다듬어질 수 있어서 좋다. 숙고하는 삶, 성숙을 추구하는 삶을 지향한다면 글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금번에 <자이언 캐년에서 눈물이 나다>를 펴낸 언론

인이자 문필가요 목회자인 조명한 목사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그는 늘 쓰는 사람이다. 기자이기 이전에 매주 "조명한 목사의 쓴소리 단소리"라는 칼럼을 쓰는 글쟁이다. 아울러 그는 글을 읽는 사람이다. 등장 그의 글을 보면 그의 폭넓은 관심사와 독서의 폭을 알 수 있다.

조명한 목사의 <자이언 캐년에서 눈물이 나다>를 단숨에 읽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이 책 읽기를 권하고 자랑한다. 이 책에서 조명한 목사의 숙고와 고민 그리고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수년간의 칼럼을 다듬고 정리하여 펴낸 책에는 과거를 향한 정리, 현재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이 책은 필자의 인문학적 소양과 섬세한 시선으로 세상을 읽어

가는 통찰력이 어우러져 있다. 언론인으로 목회자로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한 지성인의 성찰과 대안이 있고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하지만 시대를 품에 안는 따스함도 엿보인다.

시대를 알고 싶으면 이책을 읽으라 권하고 싶다. 현대 교회의 고민과 숙제 그리고 그 해결책의 힌트를 얻고 싶으면 이책을 읽으라 권한다.

강태광 목사(World Share USA 대표)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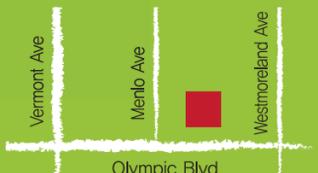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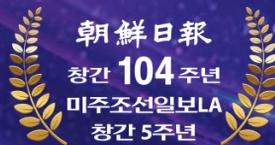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미주조선일보LA 창간 5주년 기념

미스트롯3

세상을 꺾고 뒤집어라

Live in LA

NOW
TICKET
OPEN

GALA/DINNER SHOW

10월 12일 <토> 6 PM

INTERCONTINENTAL
LOS ANGELES DOWNTOWN
WILSHIRE GRAND BALLROOM II

900 WILSHIRE BLVD, LA, CA 90017

LIVE CONCERT

10월 13일 <일> 6 PM

SHRINE
SHRINE AUDITORIUM

665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창간 5주년 기념
ChosunDaily LA
미주조선일보 LA

\$50~\$350



chosunticket.com



axs.com

\$50 | \$65 | \$70 | \$75 | \$85 | \$90 | \$100 | \$110 | \$115 | \$120 | \$125 | \$150 | \$175 | \$180 | \$200 | \$225 | \$250 | \$275 | \$300 | \$350

LIVE CONCERT 10월 13일 일요일 6 PM **미스트롯 3 LA 공연 예매처** 티켓 문의. (213)459-6800 | (213)315-5177

상호	전화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주소
삼호관광 LA점	(213) 427-5500	2580 W. Olympic Blvd. Unit #2, LA, CA 90006	코리아타운 시니어센터	(213) 387-7733	965 Normandie Ave. STE 200, LA, CA 90006
한남체인 LA점	(213) 382-2922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태양 여행사	(213) 252-9700	3030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한남체인 델라모점	(424) 955-1234	21305 Hawthorne Blvd. Torrance, CA 90503	한우리여행사	(213) 388-4141	1001 S. Vermont Ave. LA, CA 90006
장석훈의 천종산삼 LA-윌셔점	(213) 388-1234	3906 Wilshire Blvd. LA, CA 90010	장석훈의 천종산삼-부에나파크점	(562) 902-1235	5300 Beach Blvd. #118, Buena Park, CA 90621
장석훈의 천종산삼 LA-올림픽점	(213) 388-1234	2717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도르가 서점-가든그로브	(714) 636-7430	911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멸종위기에 들어선 기독교, 공학 통해 돌파구 마련”

‘랜덤 플레이 댄스 메타버스 플랫폼’
CM Holdings 이주형 대표

존 레녹스(John C Lennox), 프랜시스 콜린스(Francis Sellers Collins),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E. McGrath), 존 폴킹혼(John Charlton Polkinghorne) 등의 과학자들은 과학 지식과 논리를 바탕으로 기독교를 변증하고, 과학과 신학이 대립한다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교회 강단 위에서 성경과 양자 역학, 공학을 함께 연결해서 듣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를 깨닫게 된다.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해 줄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

이주형 대표(CM Holdings)는 “신학의 스펙트럼이 너무 좁고, 인문 사회 쪽에 과도하게 치중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영역인 ‘공학’을 다루지 못하다 보니, 교회가 다음세대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8월 13일(화) 부에나 파크 소스 몰에 있는 CM Holdings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이주형 대표는 이 회사가 주력하는 사업 모델에 대해 설명했다. ‘랜덤 플레이 댄스’라는 것은 전 세계 5천만 명 정도 사람들이 즐기는데, 어떤 노래가 나오면, 그 춤을 아는 아이들이 가운데 나와서 춤을 춘다. 우리는 맨 앞부터 끝까지 있는 아이들까지 3D 모델링을 바탕으로 AI로 점수를 매겨서 컴퍼티션을 열 계획이다.”

AI 기술 이용한 랜덤 플레이 댄스 컴퍼티션

“우승자에게는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막대한 리워드를 줘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며, 1등뿐 아니라 참가자 100명 정도에게 상금을 주려 한다. 하루에 서버 하나에 24번의 컴퍼티션을 진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서버가 10개면 하루에 240번의 컴퍼티션을 할 수 있다. 저희가 하려는 것은 5천만 명에게 랜덤 플레이 댄스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남미나 유럽에 있는 아이들이 메타버스를 통해 컴퍼티션에 참여하게 되면, 참가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 가령, 컴퍼티션 참여 비용을 1달러로 할 경우, 5천만 명이 한 번만 참여해도 5천만 달러가 될 수 있다.”

CM Holdings는 랜덤 플레이 댄스뿐 아니라, 시니어를 위한 컴퍼티션, 주부들 위한 컴퍼티션을 비롯해 골프, 달리기, 수면에 관한 것 등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오픈 베타 서비스는 11월, 유료 서비스는 12월에 오픈

“오픈 베타 서비스(정식 서비스 전에 시행하는 시범 서비스)는 9월에서 11월에 하고, 정식 서비스(유료)는 12월에 계획하고 있다. 케이팝의 확산에 일조하게 될 것이고, 현재 K-pop 팬들의 규모가 5천만 명 정도이지만



CM Holdings USA는 미국 OTC 및 NASDAQ 상장을 컨설팅 및 메인テナンス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자사의 40여명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1년 6개월 만에 점수를 관리하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왼쪽부터 이주형 대표, 박진웅 대표, 강재상 변호사. ©기독교일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팬데믹으로 유동 인구가 많이 줄어든 소포몰을 활성화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자사의 40여 명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1년 6개월 만에 점수를 관리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맨 앞에서 춤추는 참가자나, 맨 끝에서 춤추는 참가자나 동일하게 그들의 점수를 채점할 수 있다. 수 많은 AI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특허 출원을 했기 때문에 다른 유사 업체가 따라올 수 없다. 우선 랜덤 플레이 댄스가 열린다는 광고를 올리면, 여기 소셜물이 가득 찰 것이다. 인원이 더 늘어나면, 대학 캠퍼스, 큰 몰의 주차장, 광장 등도 생각하고 있다.”

CM Holdings는 AI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딥러닝을 계속하고 있으며, 전문 댄서를 데려다가 댄서가 추는 것과 아바타가 춤추는 것을 비교하며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K-pop 기획사와 연계

“이것은 월드 오디션이니까 실력이 뛰어난 아이들을 쉽게 발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참여자가 많아지면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스닥에 들어갔을 때 유니콘(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기업)으로 갈 수 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10대들을 위해 10번의 비디오를 시청하면 1달러의 크레딧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리그는 1달러짜리부터 10달러 짜리 리그를 열고, 우선 낮은 단계에서는 AI를 통해 각 참가자들의 점수를 매기고, 상위 컴퍼티션에서는 전문가들이 채점에 참여하게 된다. 현재도 메타버스 관련, SM 프로듀서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있다.”

PK였던 이 대표, 교회가 젊은이들과 점점 멀어 이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된 것은, ‘PK(목회자 자녀)’였던 그의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교회가 청년들과 접점을 잃어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젊은이와 소통할 수 있는 신학적 이야기가 부족하고, 설교와 교회 시스템이, 젊은이와 소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요즘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 승복을 입고 여러 행사에서 디제잉을 하며 MZ세대의 호응을 얻음)이 있는데, 산에 들어가 있는 불교보다도 기독교가 못하다. 이제는 교회가 달라져야 하지 않나.”

오늘날 기독교, 멸종의 위기

“노새는 번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종이 아니다. 자신의 대에서 끝나 버린다. 기독교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닌가. 살아 있다는 것은 다음 세대로 전파되어야 하는 것인데 기독교는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파해 주지 못하고 있다. 복음을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우고, 개발해야 한다.”

“다음 세대를 교회에 오게 하는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과학적 접근법이 그것이다. 저의 저서 <시간의 지문: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의 동거>, 이 책 읽은 친구 중에, ‘양자물리학적으로 하나님은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줘서 소름이 돋는다’라고 한 아이도 있었다.”

이주형 대표는 ‘CM Holdings’가 즉, Christian Membership, ‘주의 사람들이라는 뜻’이며, 엔지니어링 쪽 회사인, ‘LP’는 Logos Power, ‘말씀의 힘’의 약자라고 밝혔다. 즉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 기업의 뿌리가 된 것은 복음이었다.

엔지니어링 통해 젊은이에게 침투

“엔지니어 쪽 젊은이들, 커머셜한 쪽에 침투하는 것이 목적이다. 직원 중에 무슬림도 있고, 불교도 있다. 이렇게 가는 이유는 기독교의 배타성을 극복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다. 공학이 AI를 비롯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상실했다. 신학이 새로운 영역을 열어야 하지 않나. 신학은 변증인데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납득하게 해주는 것, 그게 신학이다. 지금 신학이 다루는

스펙트럼이 너무 좁다. 신학은 온 우주에 대한 학문이다.”

그는 “시간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시간은 디지털이다, 연속되어 있지 않고 똑똑 끊어져 있다. 그것은 이미 규명되어 있다. 왜 끊어져 있는가? 우주 시스템이 연속으로 되어 있으면 계산을 못 한다. 따라서, 시간은 샘플링 되어 있다. 시간이 왜 샘플링이 되어 있는가? 누가 만들었다는 증거이다. 그것이 ‘시간의 지문’의 의미이다.”

음악이든, 예술이든 기독교적 색채가 들어가면 외면 받아, 새로운 돌파구 마련해야

“신학이 너무 인문 사회 쪽으로 치우쳐져 스펙트럼이 좁다. 지금은 음악이나 예술 분야에서 기독교적인 것이 들어가면 전혀 안 먹힌다. 영화 ‘벤허’ 같은 것은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인문 사회 쪽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많이 연구가 되어 있다.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영역이 ‘공학’인데 그 영역으로 접근할 때 기독교가 새로운 방향성을 찾지 않을 수 있을까.”

CM은 이 프로젝트에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 두었다.

“텍스 리턴으로 들어온 재정을 선교사 자녀를 돕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선교사 자녀들 대학까지 보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 한다. 저희는 PK를 중요한 사역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다.”

CM Holdings USA는 미국 OTC 및 NASDAQ 상장을 컨설팅 및 메인テナンス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자사의 40여 명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1년 6개월 만에 점수를 관리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유니콘 기업(거대 신생 기업)으로 성장할 준비를 마쳤다. 자회사로 BTC Top Inc, BTS Solar Design Inc, Circle Metaverse DBA, CM Medical USA Inc, K-Urban Design Inc, LP Lab Inc, Selene LLC 등이 있다.

주디 한 기자
웹사이트: www.cmholdingsusa.com

“혹사 당하는 눈!”

너무 많은 눈 영양제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 **연령, 안구상태(안구건조증), 생활**
(눈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합니다)



01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17.90 ▶ \$14.90

50대 이상 : 노화로 인한 눈 건강문제(황반변성)를 지키기 위해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된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루테인은 자외선을 차단해 망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02 눈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 \$14.90

40~50대: 눈 보호와 함께 과한 업무로 누적된 '간'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 분들에게는 눈에 좋은 루테인과 간에 좋은 밀크씨슬이 함유된 '루테인 밀크씨슬'을 추천합니다.



03 눈 건강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18.90 ▶ \$15.90

20~30대 직장인: 직장업무에서 컴퓨터, 휴대폰 등의 사용량이 많고 눈이 혹사되어 피곤한데도 눈이 잘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께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베타민이 함유된 영양제가 좋습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판매처
PRO-Z USA, Inc
T.(213)278-3250



中, 목회자들에게 '조국·공산당 사랑' 훈련 실시

중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100개 주요 교회 담임목회자들이 최근 광둥성 광저우에서 개최된 한 행사에서, 정부 관리들이 감독하는 가운데 "조국을 사랑하고 당을 사랑하는 훈련"을 받았다.

이 훈련은 지난 6월 공산당 회의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교회를 감독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교회가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지도해야 할 관리들이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 VOM) 현숙 폴리(Hyun Foley) 대표는 이번 모임이 "모든 교회를 향한 중국 정부의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분석한다.

현숙 폴리 대표는 "순교자의 소리를 비롯한 다른 단체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보고해 온 사실들, 즉 목회자들에 대한 고발·투옥과 교회 폐쇄 및 자산 압류,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교회와 미등록 교회 양자의 집회에 대한 규제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지난해 9월 1일 발표된 중국 정부의 '종교 활동 장소 운영에 관한 조치'와 관련, "이는 중국 정부가 교회를 향해 '먼저 공산주의자가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전환점"이라고 했다.

그 이후, 중국 교회는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공산주의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현숙 폴리 대표는 "지난 7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훈련 행사는, 중국 정부가 모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방침을 따르도록 하는 것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고 했다.

7월에 열린 모임은 공산당 정부가 소위 '엄격한 종교 관리'라고 일컫는 계획 아래 '정부 인가를 받은 개신교회' 담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개최한 대규모 훈련 행사였다. '중국 중앙통일전선부' 관리들이 이 행사에 참석해 훈련과



중국 공산당의 상징인 망치와 낫이 그려진 간판이 저장성 쉬니안 교회 옆에 세워진 모습. ©순교자의소리

정을 감독하고 감시했다.

이 행사는 '중국개신교회전국협의회'(the National Conference of Chinese Protestant Churches), 즉 '양회'가 주최했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개신교회의 두 주요 관리 기구인 '삼자에국운동'(Three-Self Patriotic Movement)과 '중국기독교협의회'(China Christian Council)를 감독하는 기관이다.

현숙 폴리 대표는 "7월 훈련 행사와 새로운 '엄격한 종교 관리' 계획이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교회에 집중돼 있지만, 그것이 미등록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교회가 '엄격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등록 교회는 이미 받아 온 것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해야 한다. 중국 정부 당국자들이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교회들이 국가와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와 관련해 미등록 교회는 얼마나 더 가혹한 비판을 받을지 우리는 그저 상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성공회 관련 AI 상담봇 '에스크캐시' 출시돼

성공회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인공지능 챗봇 '에스크캐시'(AskCathy)가 교회 단체와 연구 기관의 협업으로 출시되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교회에 관한 도움을 주는 답변들'(Churchy Answers That Help You)의 줄임말인 이 챗봇은 토론토론태합교회협의회(TUCC)의 혁신 사역 센터와 버지니아 신학교 트라이앵크 연구소(TryTank Research Institute)가 개발하여 6월에 시범 출시되었다.

트라이앵크 연구소의 전무이사 로렌조 레브리하 목사는 CP에 이 챗봇의 목표가 "언제 어디서나 성공회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 봇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브리하는 "캐시를 개발하면서 이 도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최신 버전의 챗GPT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챗GPT의 일반 지식 기반을 능가하는 특별한 서고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서고에는 1000개 이상의 성공회 및 성공회 신앙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성공회 교회 전체의 문서들이 수록돼 있다"며 "전진운동(Forward Movement)의 서적과 총회 관련 문서들도 있다. 가능한 경우, 사용자가 더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출처를 인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직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신속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다. 삼위일체 교리부터 교회 정치, 심지어 '제4조 징계 절차'와 같은 문제들까지

전부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레브리하는 이 챗봇이 특히 평신도가 성공회 교회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교인들이 캐시와 대화하면서 교회 법규나 적합한 찬송가에 대해 알아보고, 특정한 상황에 맞는 기도문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예를 들어, 평신도 지도자가 교인 중 한 사람의 장례 조문에 참석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캐시에게 물어보면, 공동 기도문, 성경 구절, 찬송가까지 캐시가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바르나 그룹(Barna Group)은 기독교인들의 AI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22%만이 AI가 "기독교 교회에 유익하다"고 믿었고, 51%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27%는 확신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레브리하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캐시를 "도구로 인식하며,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 도구가 성공회 교회의 사역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캐시는 사용자들이 지역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에게 더 깊이 있는 조언을 구하도록 정기적으로 권장하며, 우리가 성공회 신앙에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고 덧붙였다.

2023년 7월, 기술기업 롱비어드(Longbeard)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챗봇 '마지스테리움 AI'(Magisterium AI)를 출시했다. 이 챗봇이 출시 몇 주 만에 18만 명 이상의 사용자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평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합법회침례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내세대에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성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인터넷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새을 밝히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6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7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8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9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중보기도회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 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요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요새벽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와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진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아) 오전 10: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새벽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예배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허튼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시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전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최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tla.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오렌지카운티 지역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말 4: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nchome.org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주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주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인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삼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서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6:30
2부예배 오전 9:1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 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중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평신도교우부서)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혜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LA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a,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미 대법, '타이틀 나인' 시행 중단 트랜스젠더, 여성부 출전 금지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건물. © Nicole Alcindor/ Christian Post

미국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민권법 '타이틀 나인'(Title IX)에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을 포함시키는 규칙 시행을 차단했다.

이 규칙은 공적 자금을 받는 학교에서 트랜스젠더로 자신을 인식하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화장실, 탈의실에 출입하거나, 운동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대법원은 5 대 4 판결로 새 규칙의 시행을 막은 하급심 판결을 지지했다.

12페이지의 판결문은 "이 제한된 기록과 긴급 신청에 비추어, 정부가 위법 가능성이 높은 세 가지 조항이 규칙의 다른 조항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하급 법원의 임시 판결을 뒤집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판결문은 "정부는 차단된 정의 조항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특정 조항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다"며 "항소 법원이 연방 규칙과 관련된 소송에서 신속히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엘레나 케이건, 닐 고서치,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작성하며, 연방 규칙에 대한 하급 법원의 예비 금지 명령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이러 대법관은 "현재 제출된 서면 자료와 기록을 바탕으로, 위의 세 가지 조항을 제외하고는 예비 금지 명령을 유지

할 것이다. 이는 '원고에게 제공된 구제가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들을 구제하는데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전통적인 형평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조 바이든 대통령 산하 교육부는 새로운 타이틀 나인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새 규정은 성차별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성에 대한 정의 확대는 많은 주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했고, 특히 트랜스젠더 이념을 공립학교에 강요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컸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존 브롬스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행정부의 새로운 규정 시행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브롬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종 규칙은 학교가 생물학적 여성의 두려움, 우려 및 사생활 보호를 트랜스젠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급우들과 사귀고,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을 공유하려는 욕구보다 우선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라고 썼다.

또한 "성차별을 '자칭하고 잠재적으로 계속 변화하는 성 정체성'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이틀 나인의 성 분리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972년에 시행된 타이틀 나인은 공적 자금을 받는 학교들이 성별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김유진 기자

美 매사추세츠, '남녀'를 '그들'로 부모권리법 개정



©Unsplash

미국 매사추세츠 마우라 힐리(Maura Healey) 주지사가 '남녀' 대신 성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부모권리법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최초의 공식 레즈비언 주지사인 힐리는 최근 동성 커플, 미혼 또는 트랜스젠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체외 수정이나 대리 출산 등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의 부모법에서 '성별에 따른 언어'를 삭제한 '하원법안 4970'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25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남자와 여자'를 '사람'으로, '그의'를 '그들의'로 대체하도록 했다. 또 '어머니'라는 용어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아이를 낳은 사람'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힐리는 법안 서명 후 성명을 내고 "우리의 법률은 현대 가족의 현실과 아이들

이 성장하고 번영하는 사랑 넘치는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 순간은 존엄하게 대우받고 법에 따라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매사추세츠의 모든 가족에게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중요한 입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 리더십을 발휘해 준 입법부의 협력자들, 매사추세츠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년간 싸운 모든 옹호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에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생물학적 남성 트랜스젠더의 여성부 경기 허용을 반대해 온, 대학 수영 선수 출신의 라일리 게인스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도덕적으로 파산한 겁쟁이들'이라며 "이 같은 법안은 우리의 언어를 타락시키고, 가족을 파괴하고,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해진 기자

北, 4년 만에 외국인 관광객 허용 준비

북한이 4년 넘게 중단됐던 외국인 대상 관광사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15일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2월부터 일부 지역에 한해 외국인 방문객들의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다.

북한이 우선 개방하기로 한 곳은 동북부의 백두산 인근 도시인 삼지연이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는 “이 발표를 위해 4년 이상 기다려왔다”며 “현지 파트너로부터 삼지연 관광과 나머지 국가로의 관광이 공식적으로 재개될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북한 전문 여행사인 KTG투어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이 드디어 개방된다”며 “관광객들이 이번 겨울에 삼지연을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삼지연은 백두산 기슭에 위치한 북한의 대표적인 겨울 관광지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이 도시에 아파트, 호텔, 스키 리조트

등을 건설하며 ‘고도로 문명화된 산악 도시의 모델’로 개발해 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7월 삼지연 내 건설 현장을 직접 시찰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삼지연만 외국인 관광이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뉴욕포스트는 평양을 비롯한 다른 지역도 개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국경을 봉쇄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에야 자국민들의 본국 귀환을 허용했고, 올해 초에는 러시아 관광객들의 입국을 허용하면서 점진적으로 봉쇄를 풀기 시작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외국인 관광 재개 움직임은 북한이 장기간의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재개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구체적인 관광 일정과 규모,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박용국 기자

북한군 1명, 강원도 고성 MDL 넘어 귀순

북한군 1명이 20일 오전 강원도 고성 지역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한국으로 귀순했다. 이는 201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북한 현역 군인의 귀순 사례로, 남북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한군 1명이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육군 22사단 구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귀순자에 대해 합동신문 기관은 구체적인 남하 과정과 대북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군은 귀순자가 근무했던 동부전선 MDL 인근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북확성기 방송을 송출하고 있었다. 박용국 기자

이번 사건은 지난 8일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걸어서 남쪽으로 와 귀순한 지 12일 만에 발생한 것이다. 특히 북한 현역 군인의 귀순은 201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당시에는 경기북부 최전방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1명이 맨몸으로 임진강을 건너 귀순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현역 군인의 귀순 횟수가 빈번하다면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북한군의 사기와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용국 기자

美 민주당 전당대회장 인근에 ‘낙태 버스’ 등장해 논란



이동식 낙태 시술소. ©CBS 모닝/ 유튜브 영상 캡처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진행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 행사장 주변에 이른바 ‘낙태 버스’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최대 낙태 서비스 기관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이 전당대회 기간 약물을 통한 낙태와 무료 정관 수술 등을 제공하는 ‘이동식 건강 클리닉’을 행사장 근처에 설치한 것이다.

이 단체의 최고책임자인 폴린 맥니콜라스 박사는 “(이동식 낙태 시술소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맞아 일리노이를 찾는 전 국민에게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의 영향이 무엇인지 보여 주는 것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다.

실질적인 낙태가 가능한 이동식 시술소가 전당대회장 인근에 설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친생명 운동가 및 보수주의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이 일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친생명 단체인 ‘수잔 B. 앤서니 프롤라이프 아메리카’(Susan B. Anthony Pro-Life America, SBA)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 전당대회를 ‘낙태 전당대회’라고 비난했다.

마조리 댄넬펠서(Marjorie Dannenfelser) SBA 회장은 “민주당의 극단주의가 명백히 드러나는 전당대회”라며 “낙태는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드물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민주당의 시대는 끝

났다. 오늘날의 민주당은 낙태를 강하게 지지하는 당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한 여성은 소셜 미디어 X(구 트위터)에 “민주당 전당대회 행사장과 가까운 곳에서 무료 임신 중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악한 짓”이라고, 또 다른 여성은 “그곳은 문자 그대로 ‘피바다’일 뿐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사악함”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은 자신의 X계정에 관련 사진을 공유하며 “가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가 아니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생명을 선택하라”고 했다.

일부 낙태 반대 시위자들은 이동식 낙태 시술소 밖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낙태 반대 단체인 ‘미국의 생명을 위한 학생들의 크리스탄 호킨스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민주당이 ‘죽음의 정당’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장에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자궁에 삽입하는 피임장치(IUD) 모양의 거대한 풍선도 전시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현직 대통령이나 부통령으로서의 처음으로 미네소타주에 있는 가족계획연맹 낙태 시술소에 방문한 카말라 해리스는 낙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강혜진 기자

주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침례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광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영양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들뜸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전 12:30

EM 오후 12:30

사랑부 오전 11: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아기배움) 오전 11:00

영아부예배(맘채움)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Youth 금요일미팅 오후 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사랑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주일 2부 9:30AM

주일 3부 11:15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중고등부 9:30AM/11:15AM

수요기도회 7:30PM

새벽예배 월-토 5:30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1:00

주일 3부 오전 1:30

금요일(영양) 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OC예배 오후 7:30

수요일침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ol.org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6: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리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침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교회 동시통역)

주일저녁전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f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일침례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gounchurch.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8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수능
·아시아미용기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찜닭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혈액순환 개선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함유 \$8.80
D3 5000 IU 선사한 비타민 D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함유 \$11.99
당신의 건강과 부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최순길 목사 시집 출판 기념회



시인 최순길 목사가 시집 '시선(FOCUS)'을 내고 출판 기념회를 10일 오전 11시에 Jesus' Hands Montessori Preschool에서 열었다. ©기독교일보

시인 최순길 목사(LA임마누엘 교회, 전 남가주교협 회장)가 시집 '시선(FOCUS)'을 내고 출판 기념회를 10일 오전 11시에 Jesus' Hands Montessori Preschool에서 열었다.

최순길 시인은 이날 "이 작은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바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목회자들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꿈을 따라 아름다운 영상을 찾아 헤메면서 순간 순간들을 포착하여 가슴 속에 피어나

는 울림을 글로 표현해 시를 만들었다"면서 "제 마음을 담은 시로 표현해 이렇게 작은 책자를 만들어 보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린다. 쓴 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한다"고 인사했다.

1부 예배에서 사회에 시인 이흥록 목사, 기도예 서오석 목사, 설교에 시인 이동규 목사, 축도에 지윤성 목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

축하의 시간은 축가에 김현숙 목사, 축사에 황선철 장로(CBMC 증경회장), 최영봉 목사(남가주교협 회장), 박영선 부에나파크 전 시장 순으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이날 7편의 시를 지인들의 낭송을 통해 읊미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순길 시인은 지난해 6월 미주 디카 시인협회 신인상 공모에서 제목 '어쩌다나 홀로'로 응모 수상자로 선정돼 등단했다.

토마스 맹 기자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50주년 기념음악회

8월 25일(주일) 오후 5:30
파사데나 장로교회

파사데나장로교회 (한인회중 담임 최진영 목사)는 오는 8월 25일(일),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5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악 오케스트라 공연은 40여 명의 재학생과 졸업생, 5명의 현직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 국악 뿐 아니라 국악기와 서양 음계가 만나는 영화 음악 등 다양한 퓨전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마지막 무대에는 남가주 동문합창단과 함께하는 한국의 서정 민요, '아리랑' 등이 준비되어 있다. 최진영牧사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서, 고국의 그리움과 향기를 듬뿍 담아 온 젊은 연주자들을 통해 교민들과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멋과 맛을 한껏 누리는데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연은 오후 5시 30분에 시작되며, 공연 후에는 이화여대 남가주 동창회(회장:조혜진)가 준비한 리셉션이 이어진다. 조셉 리 기자 문의: 213-509-8166(김종숙)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50주년 기념 음악회

Korean Music Department, Ewha Womans University
50th Anniversary Concert

1974 - 2024

"Ewha, Blossoming in Grace"

주연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재학생 졸업생 40여 명 및 교수진
일인 이화여자대학교 남가주 동문 합창단

Sunday
August 25th, 2024
5:30PM
FREE ADMISSION

파사데나장로교회
Pasadena Presbyterian Church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공연문의: 213 - 509 - 8166

파사데나장로교회에서 오는 8월 25일(일),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50주년 기념음악회가 열린다. ©이화여자대학교

목회와 선교를 위한 AI 활용 공개 강의

선교를 위한 유튜브나 AI 기술 활용이 강조되고 있는 이때,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는 유튜브 다국어 자막을 활용하는 방법 및 AI 음성 생성기(Voice Generator)를 활용하여 다국어 동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무료 공개 강의를 LA에서 현장 강의로 실시한다.

강의신청은 유튜브 다국어 자막 및 AI 활용한 다국어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 교회 지도자, 선교사, 신학생을 비롯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주요 강의 내용은 ◆ 유튜브 및 AI에 대한 기본이해, ◆ Chat GPT, 코파일럿(Copilot), AI 디자인, AI 광고, ◆ 유튜브 비디오, 숏츠, 라이브 방송, 플레이리스트 전략 ◆ 다국어 자막 제작, ◆ AI 활용 유튜브 Shot 제작, ◆ 비디오 편집 툴, ◆

Transcript & Translate for YouTube, ◆ AI 음성 생성기 활용, ◆ AI 활용한 사역 행정 활용, ◆ AI 도구를 활용한 목회와 선교적 활용, ◆ AI 도구를 활용한 유튜브 다국어 언어 번역 실습이다.

본 무료 강의를 준비하는 제임스 구 교수는 "이번 강의는 지난 목회 및 선교를 위한 AI 활용-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 및 선교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실무 중심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OC 지역에서 1기를 마쳤고 현재 2기가 진행되고 있다. LA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튜브 생방송을 전세계 언어를 변환하여 세계 선교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무료 공개 강의를 준비하였다"라고 강의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제임스 구 교수는 신학교 및 경

영 대학교에서 교회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NPO, 비즈니스 선교, 미디어 및 IT, 경영 및 회계학 교수 사역과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다.

참석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일정: 8월 29일(목) 7시-8시 30분 현장강의
문의:icmm@churchhomepage.org, 949-667-0264(J. Lee, JDSN), 714-393-4595 (ICMM Center) (문자가 가능)
장소: 신청자에게 공개
수강료: 현장 참가자는 무료, Zoom으로 온라인 참가시 50불.



강의신청

진유철 칼럼

천국의 위로와 소망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지난 한 주간에는 2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100세를 넘어 장수하신 귀한 믿음의 어머니들로 부활의 소망과 감동이 넘치는 천국환송예배였습니다. 그 은혜 때문인지 지난 목요일 실버드립대학 개강예배를 인도하기 직전에 한국에 계신 큰형님의 별세 소식을 들었음에도 평안한 마

음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잘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이런 저런 연락을 주고받는데, 갑자기 큰형님께 잘하지 못했던 그 동안의 일들이 생각나며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와 8살 차이가 나는 큰형님은 학창시절에는 수재라고 지역신문에도 날 만큼 머리가 좋았던 분이었습니다. 대신 마음이 너무 착하고 어린 장남으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병이 생기셨고,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는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이 크게 증축을 할 때 평생회원제도(?)에 가입하여 약값만 내

고 병원에서 지낼 수 있게 되면서 훨씬 자유롭고 안전하다고 생각한 병원으로 아예 삶을 옮기셨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식당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어야 할 정도로 병원의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40년 이상을 병원에서 지내시던 형님을 자주 찾아보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일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선교대회에 참석하기 전에는 제 아내와 함께 꼭 찾아가 뵙자고 얘기도 했었는데, 막상 짧은 한국에서의 시간 중 만나야 할 많은 사람들과 눈앞의 일들 때문에 용인의 병원까지 찾아가기가 쉽지 않아 내년에 뵙기를 다짐하며 그냥 돌아왔던 일이 마음을 아

프게 합니다.

언제나 크고 중요한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 병원에서 쓰러지신 형님을 급히 응급실로 옮겼는데 결국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후회와 죄송함과 아쉬움이 제 마음을 덮을 때쯤, 가족 카톡방에 올린 소식을 보고 동부로 출장 간 막내딸이 득달같이 전화를 해서 “큰아빠는 이제 아픈이 없는 곳에 계시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분들이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이 보여졌습니다. 무엇보다 옴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바라보니 마음에 평강과 위로가 가득함

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의 한계로 병원에서 지내야 했던 큰형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아픔도 슬픔도 애통도 없이 주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네 인생, 불완전한 이 땅이 전부 아니고 본향도 아님을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고, 다음 세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이 너무나,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욱 가치 있고 보람되도록 하늘나라 시민으로 분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만을 기도합니다. 샬롬!

백종근 칼럼

‘하위럼 선교사 조선 선교행진’ (4)

백종근 목사의 저서 『예수와 함께 조선을 걷다』는 1896년 남장로교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되어 전주와 군산 그리고 목포를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평생을 보내며 이 지역의 유무형의 선교 인프라를 깔아 호남선교의 토대를 마련한 하위럼 선교사의 선교 일대기를 담은 책이다. 그 내용을 수회에 나누어 본지에 실는다.

북장로교 선교부와 의료선교 협력
하위럼의 내한 소식은 조선 주재 선교사들에게도 금세 알려졌다. 마침 북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독립문 근처 모화관藝華館에 진료소를 차려놓고 아내와 함께 진료도 하며 복음을 전하던 중에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의료선교사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언더우드는 곧바로 서소문 남장로교 선교사 숙소를 찾아와 하위럼에게 대뜸 모화관 사역의 동참을 제안했다. 이미 예방협정으로 각국 선교부의 선교지역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지만, 전혀 영문을 모르던 하위럼은 언더우드의 간곡한 협력 요청에 비록 잠깐이었지만 북장로교 의료사역을 돕기도 했다.

호남선교를 시작하다
1892년 내한한 7인의 선교사들과는 달리, 그 뒤를 따라 내한한 조

기 선교사들은 언어를 충분히 익힌 다거나 선교지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왜냐하면, 지부설치에 분주했던 개척선교사들의 일정에 맞추어 함께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초기선교 활동은 실제로 개척선교사들과 동일한 시점에서 시작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위럼보다 한해 먼저 내한한 유진 벨의 사정은 조금 나았으나 하위럼은 내한한 지 겨우 6개월 만에 곧바로 전주로 배치가 되면서도 그들과 같은 템포로 활동해야 했다.

선교지를 전남지역까지 확대하다

7인의 개척선교사가 내한한 그 이듬해(1893) 먼저 온 북장로교 선교사들과 ‘장로교선교공의회’를 조직하고, 선교지 분할의 원칙적인 사항들을 논의하면서 예방협정 Commity Agreements를 맺을 때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도와 충청도 지방은 일찌감치 남장로교에 맡겨졌다.

남장로교 선교부에서는 지부 설치 계획을 세우고 한 조에 두 사람씩 편성해 군산에는 레이놀즈와 드루를 그리고 전주에는 전킨과 테이트를 보내 탐사를 마쳤던 터라, 아직 돌아보지 않은 전남지역까지 선교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1896년 가을 벨과 하위럼에게 후보지 탐사를 맡겼다.

동학농민항쟁이 일어나기 전,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 이미 마련된 전주지부를 교두보로 삼아, 1896년 9월 한 달 동안 하위럼과 벨은 전남 일대를 돌면서 후보지를 모색했다. 그해 11월에도 두 사람이 재차 탐사하며 내린 결론은 일단 전남지방의 행정중심지인 나주를 지부의 후보지로 물망에 올린다는 거였다.

이듬해인 1897년 3월, 나주에 부지를 매입했으나, 전혀 예상치 않았던 지역유립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다. 나주에 서양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게다가 일부 주민들이 돌을 던지며 선교사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르자 선교부에서는 부지 매입을 취소하고 결국 나주지부 설치 계획을 무산시키고 말았다. 마침 목포가 개항장으로 선정되었다는 발표가 나자 지부의 후보지를 목포로 바꾸면서 유진 벨은 목포에다 지부를 세우게 된다.

“1897년 3월 봄, 배유지와 하위럼 두 목사는 나주에 가서 성내에 숙소로 쓸 초가집 한 채를 사서 수리하고 (종략) 성밖에는 장차 선교지로 사용할 땅을 매입한 후, 전도를 시작하였다. 양반 골인 나주는 외국인과 예수교에 대한 태도가 적대적이었다. 청년들은 작당하여 돌



말을 타고 탐사 여행을 떠나는 해리스(좌)와 벨(우)

을 던졌으며 선교사를 성 밖으로 축출하려고 하였고, 주민들은 선교사들이 성내에 거주할 경우 살해하겠노라고 거둬 위협하였다. 이리하여 배유지 목사와 하위럼 목사는 부득이 매수하였던 토지와 가옥을 환매하고 다른 곳으로 선교지를 개설할 수밖에 없었다.”

제4장 풍남문(豊南門)의 성곽길을 따라(1896-1904)

농민항쟁에 스러진 함성을 꺼안고 남도 탐사를 마치고 돌아온 하위럼에게 곧바로 전주 사역이 맡겨졌다. 6개월의 언어훈련과 짧은 탐사 여행만으로는 문화와 풍습을 제대로 파악할 수조차 없었지만, 하위

럼은 먼저 온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 현장에 부임해야만 했다.

말로만 들었던 전주는 제주도를 포함해 전라도 전체를 호령하던 전라감영의 소재지로 호남의 수부府였던 터라, 하위럼이 전주에 부임할 당시만 해도 위풍당당한 자태를 자랑하는 4대문이 성곽을 돌아가며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여유로움을 뽐내는 남쪽의 문만큼은 남문이라 하지 않고 꼭 풍남문으로 불렀는데 풍남문은 아예 전주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다. 비록 규모는 작아도 전주는 왕조의 본향으로 격식과 풍취가 곳곳에 배어있었고, 반가班家의 기풍이 확연히 느껴지는 곳이었다.

202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Advertisement for the 2024 Midwest Christian University Fair. It features a grid of 12 university logos and descriptions, including Talbot School of Theology,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World Mission University, Evangelical University, Gateway Seminary, Grace Mission University, Azusa Pacific University,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nd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Each entry lists contact information and key programs.



“기(氣)의 제왕” 영양칠보석



“병명없이, 이유없이 아픈 분들” 에게
인체 약 150여군데에 자연의 기에너지파동을 넣어줍니다.

- 자연이 만든 세계 최고의 기발산석 영양칠보석
- 세계가 인정한 우리 고유의 돌입니다.
- 기와 원직외선이 옥의 약 250배
- 맥반석, 게르마늄의 약 150배
- 황토의 200배



영양칠보석 건강에 최고



칠보석 매트(1인용)



칠보석 매트(2인용)

*교통사고 환자분에게는 특히 최고입니다

- 병원에 가도 병명없이 아프거나 기운이 없는 분
 - 어깨가 결리고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리신 분
 -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항상 피곤하신 분, 피곤한 수험생, 직장인 및 고령자 분
 - 혈액순환 장애로 아침에 항상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신 분
- 이런 분들께 효과가 있습니다.

*오목세트(목걸이1, 팔찌2, 발찌2)를 사용하시면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원석 (3인용) 소파방석



세라믹 (3인용) 소파방석



세라믹 (1인용) 소파방석



원석 (1인용) 소파방석



영양칠보석 건강센터

952 S Western Ave #110, Los Angeles, CA 90006

213.663.8052

■ 뇌치유상담

영적 신비적 체험, 뇌에 갇히지 않는다



손 매 남 박사
한국상담개발원 원장
美 코헨대학교 국제총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고후 12:1 인간은 누구나 영적·신비적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각자 종교적 체험을 통해 자신의 종교적 믿음이나 종교적 신념을 더욱 강화시킨다. 신을 믿는 기독교 전통의 종교적 체험을 경험한 역사적 두 인물이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사도바울,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성 프란체스코를 들 수 있다. 이 두 사람의 종교적 체험은 영적·신비적 체험을 통해 삶의 변화와 심리 영성의 변형을 가져왔다. 영적·신비적 체험 이후에 자주 보이는 심리 영성의 변형은 사고, 감정, 태도, 자아 세계에 대한 주요 신념, 행동 등의 변화를 수반한다.

사도바울은 본래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에서 초기 기독교 교회를 무자비하게 박해한 장본

인이었다. 그는 심지어 돌을 던져 죄인을 죽이는 일에 적어도 한번 가담한 인물이다.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위대한 율법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했다(행 22:3).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에서 휘황찬란한 한 줄기 빛이 그를 향해 쏟아져 내려왔다. 이로 인해 바울은 말에서 떨어지고 두 눈을 뜰 수 없게 되었다. 바로 그때 신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행 9:1~9). 이러한 환상으로 인한 영적·신비적 체험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그는 여생을 박해하던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였고 사울이었던 그가 사도바울로 살게 되었다.

한편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1182~1226)는 젊은 귀족으로 인생을 만끽했는데, 쾌락을 그보다 더 탐닉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는 경건 생활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잘생기고 쾌활하고 의협심이 강하고 제멋대로인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러다가 20세쯤에 병상에 누워있는데, 대단히 넓은 방에 십자가 표시를 한 군사들을 보게 되는 환상을 경험했다. 그때 그는 “이 사람들은 바로 너의 군사들이다”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러한 환상을 경험한 뒤부터 프란체스코는 더는 쾌락을 탐하지 않고, 그 대신에 기도로 일관된 조용하고 단순한 삶을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였다. 결국 그는 가

난한 사람들과의 자연을 아끼는 삶의 태도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되었다. 특히 동물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유명했다.

영적·신비적 체험 이후에 자주 보이는 심리 영성의 변형은 사고, 감정, 태도, 자아 세계에 대한 주요 신념, 행동 등의 변화를 수반한다. 종교적·영적·신비적 체험이 뇌 기능장애로 생긴다는 유명한 소설을 소개한다.

마크 잘즈만(Mark Zalzman)의 심금을 울리는 소설 ‘아름다운 선택’에서 주인공인 십자가의 성 요한 수녀는 몇몇 년 전에 정서적으로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뒤로 하고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위치한 카르멜 수녀원의 엄격한 규칙인 침묵과 금욕의 기도를 하였다.

그러나 수녀원에서의 삶은 질서 정연하고 평화로운 대신에 무미건조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날의 연속이었다. 그러다가 성 요한 수녀는 이상한 환상을 체험하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를 쓰게 되었다. 마침내 그녀는 ‘지붕 위의 참새’라는 시집을 펴내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그 책 덕분에 수녀원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신의 사랑을 듬뿍 받는 영적 스타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상한 환상 때문에 그녀는 심한 두통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고통이라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였

지만, 갈수록 두통이 심해졌고 급기야는 발작까지 이어졌다. 어쩔 수 없이 신경과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자신의 우측 귀 위에 생긴 종양 때문에 측두엽 뇌전증(간질)이라는 병을 앓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의사가 말하기를 “측두엽 뇌전증은 행동과 사고의 변화를 일으킬 때도 있고 심지어는 환자가 발작하지 않을 때도 그럴 수 있으며, 끝도 없이 글을 쓰고 싶어 하는 하이퍼그래피아 증세가 나타나고, 감정이 지나치게 강력해지고 편협해지며 종교와 철학에 극단적으로 과도한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 수녀는 종양 수술을 하면 환상을 더 이상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렇다면 환상이라는 것은 뇌기능 장애의 결과인 것인가? 성 요한 수녀는 자신의 삶이 유물론자가 볼 때는 일종의 정신병자처럼 보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측두엽 뇌전증의 주원인인 종양을 수술하였다. 발작이 계속 일어나면 수녀원에 있는 다른 자매들이 걱정할까 봐서이다. 종양을 제거하자 그녀의 환상은 사라졌고 그와 동시에 글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모든 뇌전증(간질)이 종교적·영적·신비적 체험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을까? 정말로 뇌 이상이 신 모티브나 신 회로를 유발하는가 말이다. (계속)

■ 주성철의 세상보기

창조질서를 허무는 자들



주 성 철 목사
태평양법률협회
한인 디렉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진리이다.

그래서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는 정관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신조인 성경적인 결혼관과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적 정의항목을 중요항목에 포함시킨다. 이것은 교회나 선교단체 또는 기독교인 사업체들

이 자신의 신조를 밝히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성소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으려는 신앙이 확고부동하기 때문이다.

사실 개인 사업체에서는 성소수자들의 공격을 당하면 속수무책이다. 첫째는 소송을 감당할 만한 재력이 없고, 둘째는 ‘법’에 대한 대항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도 미국의 많은 신앙인들은 사업에 피해가 오고, 벌금을 물고, 심지어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도 자신들의 신앙을 굽히지 않는 분들이 많다.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지난 1월에도 메이슨 굿나이트(Mason Goodknight)라는 분을 대신하여 내가 근무하는 협회에서 대신 소송을 제기한바가 있다. 그는 27년 동안 더글러스 카운티 보안 사무실에서 부관으로 근무했는데 로즈버그에 있는 더글러스 카운티 감옥에서 자신을 ‘남성’이라고 우기는 여성의 몸을 종교적 양심으로 옷을 벗기고 수색할 수가 없

어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고를 당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남자인데 생물학적인 여성을 성전환을 했으며 ‘남성’이라고 우겨도 그의 옷을 벗기고 몸수색을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직업과 직책상 요구가 있다고 해도 여성의 몸을 남자인 자기가 옷을 벗기고 만지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미시간주의 67세난 어느 할머니도 한 직장에서 오래 일을 같이 하던 여성에게 고소를 당했다. 이유는 젊은 여성이 성정환술을 하였으니 타이틀 7항(Title VII)에 근거하여 새대명사를 사용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당연히 거부했고 그 이유로 해고된 것이다. 오랫동안 함께 일하던 여성이 하루아침에 성전환을 했으며 남성으로 불려달라고 하니 신앙인으로서 거부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결국 할머니는 법정에서 승소하여 직장에 복귀하였다.

어이없는 세상, 어이없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위험도 뒤따르고, 제재도 점점 많아진다. 대화가 통하지도 않고, 싸우려 덤벼들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사하여 선량한 이들의 피해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노방설교를 하는 어느 분은 전도를 하다가 하얀 빵떡모자와 흰옷을 입은 무슬림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가하는 바람에 부상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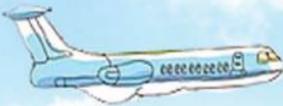
경찰이 출동을 했고 경찰에 체포된 무슬림은 예수의 메시지가 거짓이기 때문에 무력으로라도 막아야 해서 소동을 피웠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날이 갈수록 사탄은 새로운 이벤트를 세워 달려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신호이다. 그래서 오늘도 더 깊은 말씀묵상과 기도로 주의 재림을 갈망한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p>이사의 명가(名家)</p> <p>귀국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기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p>시내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p>자동차운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p>가주 삼성 통운(주)</p> <p>타주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새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p>해외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

문의 1-877-580-2424 **사무실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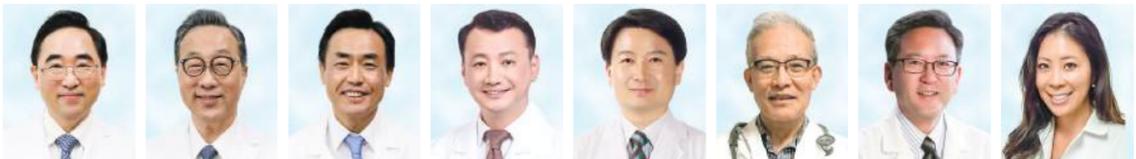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서울메디칼 그룹 주치의



한경모 Kyung Mo Han	조지 인 George In	백상현 Sang Hyun Baik	이영직 Young-jik Lee	이선우 Sonwoo Lee	강두만 Deno Kang	강훈구 Hun Ku Kang	다이아나 김 Diana Maria Kim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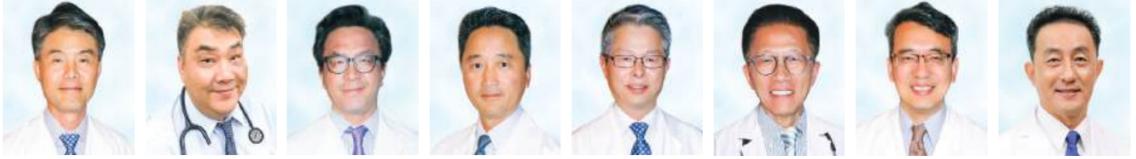
카렌 김 Karen Kim	김경애 Kyoung Ae Kim	김성현 Sung Hyun Kim	김승현 Seung Hyun Kim	김영진 Evan Kim	김일영 Il Young Kim	김정한 Peter Kim	스티브 박 Steve Park	손향은 Hyang Eun Sohn
-------------------	----------------------	----------------------	-----------------------	-----------------	---------------------	------------------	---------------------	-----------------------



송명재 Mark M. Song	신동원 Dong Won Shin	로리 안 Lauri I An	안승록 Seung R An	윤은주 Eun Joo Yoon	잔 음 John Ehum	이용태 Yong Tai Lee	임대순 Dae Soon Rheem	임영빈 Justin Rheem
---------------------	----------------------	--------------------	-------------------	---------------------	------------------	---------------------	-----------------------	---------------------



임대순 Dae Soon Leem	정만길 James J. Jung	정준 Jun Chung	정희수 Hee Soo Jeong	조아라 Ahra Cho	주우진 Woojin Joo	프랭크 최 Frank Choe	허남형 Brian Huh	최순아 Soon Ah Choi
----------------------	----------------------	-----------------	----------------------	-----------------	-------------------	---------------------	------------------	---------------------



김홍식 Hong Sik Kim	폴 장 Paul S. Chang	하태준 Robert T. Ha	잔 김 John Kim	홍훈기 Hoon Gi Hong	김방선 Bang Sun Kim	송채원 Chaewon Song	강수웅 Soo Woong Kang
---------------------	----------------------	---------------------	-----------------	---------------------	---------------------	---------------------	-----------------------



김대중 Dae-choong Kim	김성현 Sung Hyun Kim	김종진 Jongjin Kim	김진세 Chin Se Kim	박재만 Jae Man Park	방재훈 Jason J. Pang	송명재 Mark M. Song	신창은 Chris C. Shin	안규동 Kyu Dong Ahn
-----------------------	----------------------	--------------------	--------------------	---------------------	----------------------	---------------------	----------------------	---------------------



안우성 Woo Sung Ahn	오문목 Moon M. Oh	이광혁 John K. Lee	이용호 Yong Ho Lee	이효구 Joseph Yi	알버트 장 Albert Chang	최원배 Wonbae Choe	리차드 한 Richard S. Han
---------------------	-------------------	--------------------	--------------------	------------------	-----------------------	--------------------	-------------------------



석태영 Larry T. Suk	임영빈 Justin Rheem	김학준 Philip Kim	장국일 Kook Il Chang	리사 김 Lisa Kim	박성수 Richard Park	유경수 Kyung Soo Yoo
---------------------	---------------------	-------------------	----------------------	------------------	---------------------	----------------------



백성렬 Jason S. Paek	변상준 Sangjun Byeon	오희용 Hee Yong Oh	신예용 Yeyong Shin
----------------------	----------------------	--------------------	--------------------

한인 의료진이 가장 많은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서울메디칼 그룹이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봐드립니다.



520 S Virgil Ave #107, Los Angeles, CA 90020 (전화) 213-389-0077 / 800-611-9862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진리 인정하면, 하나님 믿지 않을 수 없다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두 근원이신 하나님 가리켜



솔직히 말해 이 책은 어렵다. 177 쪽 정도의 분량에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담고 있는 내용이 어려워서 그렇다.

책을 추천한 존 프레임은 “이 책의 헌정란에 내 이름을 표기한 것은 내게 크나큰 영광”이라고 말했고, 웨인 그루넬도 책 저자인 포이트레스에 관하여 “성경에 충실하려고 늘 주의하면서도 창조적으로 사고하는 특출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다”고 칭찬했다.

번 S. 포이트레스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로 해석학과 신학에 조예가 깊고, 변증학에도 뛰어난 저자이자 학자이다. 국내엔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학>(이레서원, 2018),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예수의 기적>(새물결플러스, 2019) 등의 책이 소개된 적이 있다.

생명의말씀사에서 2024년에 출간한 이 책 <진리, 신학, 관점>은 저자의 특징이 잘 드러난 책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성경 해석을 기반으로 신학적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진리의 변증이다.

이 책은 1부 신론, 2부 인간론, 3부 구속, 4부 구속의 적용으로 크게 구분돼 여러 신학 내용을 성경의 진리로 다룬다. 여기까지는 여느 교리서나 신학 서적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의 특별한 점이 탁월한 장점은 그 모든 내용을 ‘진리와의 관계’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이 책은 철학적이다.

저자는 이렇게 이 책의 목표를 밝혔다: “우리는 탁월한 조직신학 책들이 이미 다루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주요 교리에 무엇을 첨가하려 하지 않는다. 각 주제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을 개관한 다음 그 구절들에 근거한 광범위한 논거를 개발해 성경의 가르침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도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성경 자체에서, 여러 구절에서 이미 발견된 것을 반복할 것이다... 진리를 하나의 관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성경의 가르침의 아름다움과

그 가르침의 내적 조화를 더욱 깊이 인식하도록 독자를 도우려 한다(10-11쪽).”

이 책은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 있고 무오한 진리의 말씀임을 전제하고, 개혁주의 신도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애쓴다. 이 책이 활용하는 ‘진리’라는 관점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주장하는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이 드러내신 절대 진리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에, 성경의 가르침이 명료하기 때문에, 성경께서 조명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진리이다.

저자가 밝힌 이 책의 목표만 보고는 이 책이 진리를 어떻게 전달하고자 하는 지가 가늠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서평을 통해 한 예시를 보여준다면, 저자 포이트레스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하고, 진리의 개념과 연결시킨다. “진리 개념을 검토하면 사실상 참되신 하나님, 모든 진리를 아시는 분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16쪽)”고 확신한다.

세상에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그 자체가 “자멸적(17쪽)”인데, 왜냐하면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진리여야 하기 때문이다(별써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책이 어렵다고 한 이유라는 것을 알라).

진리는 존재해야 하고, 만일 진리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참이어야 한다(편재성, 영원성, 불변성). 그런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진리가 시작된 지점이자 근원인 인격체 그것도 편재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인격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진리는 또한 내재적이면서 초월적이어야 한다. 모든 만물 안에서 통용되는 원칙이자 만물을 초월하여 확장될 수 있는 특성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만물 가운데 계시지만 또 만물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저자는 ‘진리’의 관점에서



©픽사베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변증적으로 다룬다. 저자의 이 관점은 인간론, 구원론 및 구원의 적용을 설명하는 데까지 계속 활용된다.

독자는 이 책이 담고 있는 성경 해석이나 성경 교리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진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은 쉽게 납득이 되고, 저자가 의도한 것처럼 ‘진리’ 안에서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통일되어 있고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 감탄하고 기독교 교리에 대한 강한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다만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자가 견지하는 ‘진리’의 개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다루고 있는 신학

이 어떻게 진리의 관점에서 설명이 되는지, 다른 교리와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붙잡고 고찰해야 한다.

어쩌면 이 책은 코넬리우스 반틸이 주창한 전제주의 변증의 확실한 예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 진리의 존재를 인정한다. 참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진리는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 책을 읽고 연구하는 모든 독자가 이 명백하고 아름다운 사실에 감격하고 또 그것을 힘있게 전파하게 되기를 바란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진리, 신학, 관점

번 S. 포이트레스 | 김태곤 역 | 생명의말씀사 | 184쪽 | 15,000원

세상에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그 자체가 “자멸적(17쪽)”인데, 왜냐하면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진리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진리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참이어야 한다(편재성, 영원성, 불변성). 그런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진리가 시작된 지점이자 근원인 인격체 그것도 편재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인격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진리는 또한 내재적이면서 초월적이어야 한다. 모든 만물 안에서 통용되는 원칙이자 만물을 초월하여 확장될 수 있는 특성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만물 가운데 계시지만 또 만물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시다.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첫째서 2:19



1 THESSALONIANS 2:19
For what is our hope, our joy, or the crown in which we will glory in the presence of our Lord Jesus when he comes?

출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전문작가와 함께 하는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당신이 지금 여기에, 또 쉽게 숨쉬며 살았다는 건, 그 노동하고 찬란한 삶의 흔적을 남기세요.

자서전을 통해 당신의 값진 순간은 눈부신 영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Record is Memory

기독일보
T.(213)739-0403, (213)434-1170
www.cowriter.co.kr
chdailya@gmail.com

기독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Record is Memory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파리 올림픽의 PC주의 (2)

‘유럽의 중국’ 프랑스의 현주소 드러낸 파리 올림픽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4년 하계 올림픽 개막식. ©Paris 2024

PC주의 뿌리, 포스트구조주의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철학 부상 틀레랑스, 종전 후 자리잡았으나 우월·자문화 중심주의 극복 못해

◆ 독일 철학의 전성기: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철학계에 지배적 영향을 준 독일 철학

이번에 파리에서 개최된 올림픽 개막식과 경기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PC주의의 철학적 뿌리는 가깝게는 포스트구조주의, 조금 멀게는 실존철학이다. 그리고 프랑스는 20세기 후반 실존철학과 포스트구조주의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가장 앞서나가는 철학 선도국의 지위를 누렸다.

여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근현대 서구 철학은 크게 영미 철학과 대륙 철학으로 나뉘고, 이 가운데 대륙 철학은 다시 독일 철학, 프랑스 철학, 그리고 러시아-동유럽 철학으로 분류된다. 사실 이런 분류는 철학사 연구자들이 다소 편의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근거가 없다고만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각 나라 학자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류할 수 없었던 과거에는 각 지역별로 철학 연구에 사용되는 언어가 나뉘져 있었고, 각 언어별로 철학계의 스승-제자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물론 후설과 레비나스의 경우처럼 지역과 언어의 경계를 뛰어넘는 사제 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로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다.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전까지 서구 철학의 주도권은 독일 학계가 확보하고 있었다. 칸트의 선형론, 피히테, 셸링, 헤겔의 독일관념론, 포이어바흐, 마르크스의 유물론, 니체의 무신론, 코헨, 빈델반트, 리츨, 트릴취 등의 신칸트주의, 후설, 셸러, 하이데거의 현상학에 이르기까지

19세기부터 20세기로 넘어가는 시기, 독일에서는 유럽과 영미권, 그리고 전 세계 철학계 전체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철학 사조들이 연이어 등장했다.

그리고 같은 독일어권인 오스트리아에서도 쉐링, 노이라트, 카프남, 괴델 등이 주도한 논리실증주의가 등장해 수학과 과학에 대한 혁신적 이해방식을 제시했다. 이 시기 영국과 미국, 프랑스, 러시아-동유럽 방면에도 걸출한 사상가가 여럿 존재했지만,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들만큼 사상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이처럼 독일이 한 세기 넘게 불붙고 있던 서구 철학 주도권은 제1·2차 세계대전을 통해 영미 철학과 프랑스 철학계로 넘어온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다수의 신칸트주의자들은 프로이센 제국의 개전과 침략을 지지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아예 니체의 위버멘쉬 즉 ‘초인’ 사상이 히틀러를 신격화하는 데 도용됐으며,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이 명백한 친나치 행보를 보였다.

독일 철학이 내세웠던 인간 이성 능력에 대한 신뢰, 혹은 인간 실존 고요성 같은 개념들이 중국에는 수많은 이들을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홀로코스트 같은 극악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됐기에,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철학은 이전에 비하면 거의 몰락에 가까운 쇠퇴기를 맞이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피해를 입었던 프랑스 편으로 철학계의 주도권이 넘어왔다.

◆ 프랑스 철학의 전성기: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각광받은 프랑스 철학과 윤리학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유럽에서는 프랑스 철학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기 시작했다. 그 선두에는 사르트르, 보부아르, 그리고 카뮈의 실존철학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는 메를로-퐁티와 레비나스의 현상학, 리코르의 해석학, 레비나스, 푸코, 데리다, 들뢰즈, 리오

타르, 알튀세르 등의 포스트구조주의가 등장하면서 프랑스가 세계 철학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국가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현대 프랑스 철학의 특징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이다. 저명한 프랑스 철학자들 가운데 레비나스와 리코르, 그리고 데리다는 실제로 전쟁 중에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차별을 받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유대인이었던 레비나스는 프랑스군 소속으로 종군했다가 독일의 포로수용소에 갇혔고, 부모와 형제들이 홀로코스트 때문에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 프랑스인이었던 리코르 역시 전쟁 중 포로로 잡혀 독일의 포로수용소에 몇 년간 수감돼 있었고, 레비나스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었던 데리다는 나치 괴뢰정권이던 비시 프랑스에 의해 알제리에서 다니던 학교를 쫓겨나는 경험을 했다.

그 외에도 대다수 프랑스 철학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파시즘의 억압과 폭정을 경험했다. 이에 종전 이후 프랑스 철학계는 파시즘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타자 윤리, 개개인 삶의 고요성과 자유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 차이와 다름에 대한 포용을 위한 사상을 정립하고 전파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다.

이로써 20세기 중후반의 프랑스 철학자들은 윤리적으로 대단히 정교하고 고아한 사상 체계를 정립했고, 포스트구조주의라는 철학과 문화의 대세를 주도했다. 전 세계에서 인권과 자유 그리고 다양성의 포용이라는 이념을 추종하던 연구자들은 거의 다 프랑스의 현상학, 해석학, 그리고 포스트구조주의를 참고하면서 철학적 윤리학을 연구했다.

1970년대 미국에서 발흥한 PC주의 역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서 같은 시기의 프랑스 철학에 상당한 정도로 의존하고 있었다.

과거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철학사상이 그러하듯, 프랑스 현상학과 해석학, 그리고 포스트구조주의 또한 하나의 절대적 한계가 존재한다. 바로 이론과 현실의 괴리이다. 과거 근현대 독일 철학이 온전히 이성적이고도 덕적인 인간이라는 이상에 다다르지 못하고 기괴한 결말을 맞이했듯, 20세기 중후반 전 세계 철학계에 지배적인 영향을 준 프랑스 철학 역시 현실에서 다수의 대중이 실천하기에는 과도하게 정교하고 이상적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프랑스의 정치적·사회적 삶을 규정하는 원리, 틀레랑스(관용)는 18세

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정립됐지만, 대혁명 이후 오래도록 이어진 프랑스 내부의 사회혼란 때문에 19세기 후반 ‘벨 에포크’ 시대에 와서야 그나마 문화예술 분야에서 어느 정도 실천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1·2차 세계대전의 혼란으로 거의 사장돼 있다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야 비로소 프랑스 철학의 새로운 동향에 힘입어 더욱 강화된 모습으로 사회 전반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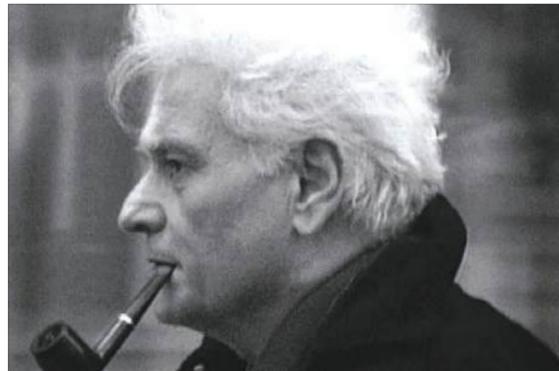
즉 프랑스 사회에서 다양성에 대한 포용정서가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라 볼 수 있고, 그나마도 프랑스인들 마음 속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백인우월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를 충분히 극복하지 못한 기형적 형태로 사회 전반에 퍼진 것이다.

원래 현대 프랑스 철학의 중심 기조는 타인에 대한 책임을 우선시하는 윤리적 사유와 실천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명분삼아 개인의 권리, 자기 권리를 우선시하는 식으로 통속화된 것이 현주소라 볼 수 있다.

프랑스 사회는 자유와 평등을 그들의 삶의 원리로 부르짖지만, 막상 자국으로 받아들인 이민자들과 외국인들을 적절하게 환대하지 못하고 술한 인종적 갈등으로 몸살을 앓으며 내부적으로 인종과 민족 간 혐오 및 멸시의 문제를 적절하게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프랑스는 속칭 ‘유럽의 중국’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 프랑스 올림픽의 PC주의는 바로 이런 프랑스 사회의 사상적 부조화가 잘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 국가올림픽스포츠위원회는 ‘다양성 포용’이라는 명분으로 PC주의를 앞세우지만, 실상 자국의 철학적 주도권을 뺏내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인들은 대단히 정교하고 예리한 사상적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이 유산을 참된 윤리 실천을 위해 발전시키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적 우월함과 자부심을 입증하는 증거로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프랑스 포스트구조주의의 대표 사상가 중 한 사람인 자크 데리다. ©유키

제2기 성경 필사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 3:16~17)



관심과 기도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실 후원자분들을 찾습니다.

오늘 날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미디어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에 신약성경 6권(사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의 성경 말씀 필사를 통해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합니다. 지난 1기 성경필사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37명에게 전달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한 영적 승리의 열매가 맺힘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제2기 성경필사 장학생 33명이 선정되어 2024년 7월 20일부터 필사를 시작하여 12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치열한 영적전쟁을 치루며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두가 필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할 때 승리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성경 필사 본문(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성경 필사 후 소감문 작성자 중 선별하여 특별 상품 수여



* 상품은 광고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최: 기독교일보 주관: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chdailyreporter@gmail.com

월드미션대학교, 한국의 성결대학교와 업무협약 (MOU)

“WMU와 성결대 협력, 국제적 역량 강화의 계기 될 것”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와 성결대학교(총장 김상식 박사)는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월드미션대학교 스마트 강의실에서 상호 협력과 유대 관계에 대한 양 기관의 의지를 담은 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식을 위해 성결대학교의 김상식 총장과 유현식 실용음악과 교수가 한국에서 본교를 방문하였다.

이 날 체결식에서 성결대학교 김상식 총장은 “이번 WMU와의 협력이 성결대학교의 국제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WMU 임성진 총장은 “양교의 협력을 통해 21세기 기독교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이 가지는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월드미션대학교와 성결대학교는 학문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학술 자원 교환 및 시설 활용을 도모하고, 둘째, 교수 및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양 대학 간의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 하며, 셋째, 문화 체험 및 단기 어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양 대학은 공동 세미나와 학술대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월드미션대학교와 성결대학교는 서로의



월드미션대학교가 성결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월드미션대학교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에 대한 상호 발전을 기대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열어가길 수 있게 되었다. 김민선 기자

대한인국민회 기금 모금 행사

8월 29일(목) 오후 5시
옥스포드 호텔 2층서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Korean National Association Memorial Foundation; KNAMF, 이사장 클라라 원)이 “대한인국민회 100년사” 발행과 함께 ‘대한인국민회 활성화’를 위한 기금모금 행사를 8월 29일(목) 오후 5시 옥스포드 호텔 2층 (Dynasty Hall)에서 개최한다.

또한, 대한인국민회에서는 이민역사120여년을 보내며, 미래를 위해 도약하는 국민회는 다음 세대로의 계승을 위해 후원회를 발족했다. 후원회는 국민회를 보존하고 우리의 역사

를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세대 역사교육, 일반인들을 위한 이민 역사 세미나, 독립유공자 발굴 및 사적지 탐방활동들을 통해 1세대와 차세대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대한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들의 유물을 보존하고 ‘도산’ 선생의 교육정신이 살아있는 로스앤젤레스시 사적지 548 호인 대한인국민회는 역사물을 관리 보존하며, 다음 세대로의 계승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주소: 1368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이메일: knamf1909@gmail.com
전화 :323)733-7350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KNAMF, 이사장 클라라 원)은 8월 29일(목) 오후 5시에 옥스포드 호텔 2층에서 대한인국민회 활성화를 위해 기금 모금 행사를 주최한다.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번영복음 설교자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건 왜?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로빈 슈마허(Robin Schumacher) 박사가 최근 크리스천 포스트(CP)에 ‘왜 번영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번창하는 것처럼 보일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에서 그는 “번영을 선포하는 이들은 종종 순진하게 묻는다. ‘성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 결국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한3서 1:2)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또 아브라함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경 속 다양한 인물들도 부유하지 않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그 수고로 성공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방향을 가리키는 내용이 꽤 있

다”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적 보상이 삶의 유일한 초점이며 하나님이 큰 보상을 얻기 위한 소원 우물처럼 여겨질 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W 존스(David W Jones)의 말을 인용하며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번영 복음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관점 때문에 거짓 복음이다. 아브라함의 언약, 속죄, 헌금, 믿음 또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든, 번영 설교자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일종의 대가성 거래(quid pro quo transaction)로 바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번영 메시지는 영적 진리를 현재적인 재정적 ‘축복’의 통로로 왜곡하여 진짜 복음을 변질시킨다”면서 “존스는 번영복음을

다섯 가지 점에서 다룬다. 첫째, 아브라함의 언약은 물질적 자격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둘째, 예수의 속죄는 물질적 가난이라는 죄마저 해결한다. 셋째, 기독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 보상을 얻기 위해 헌금을 드린다. 넷째, 믿음은 번영을 불러오는 자발적인 영적 능력이다. 다섯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번영을 요구하는 도구로 쓰인다”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가르침들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눅 12:15)와 ‘돈을 사랑하지 말고’(딤후 3:3)와 같은 수많은 성경적 권고와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슈마허는 번영 설교자들의 화려한 삶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1분마다 속는 사람이 태어난다”는

오래된 속담을 기억하자. 번영 설교이든, 종교와 관계없는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든, 모든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축적하려는 탐욕을 겨냥한다”며 “사기꾼들이 초월적인 손길이 준비되어 있고 가까이 주신다면, 성경 구절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하면 그 유혹은 압도적일 수 있다. 머지않아, 그 모든 ‘씨앗 헌금(seed offerings)’은 번영 설교자의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해는 되지만, 여전히 왜 하나님은 이런 가르침이 계속되고 번영 설교자들이 쉽게 잘 사는 것을 허락하시는 걸까? 질문을 한 단계 높여서, 하나님께서 왜 거짓 가르침을 허락하시는지 물어보자. 결국, 번영 복음은 수많은 거짓 종교적 틀 중 하나에 불과하다. 번영 복음은 바울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골 3:5)라고 말했듯이 거짓 신과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한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NEW COVENANT ACADEMY

CELEBRATING 25 YEARS

AN IB WORLD SCHOOL

- RIGOROUS ACADEMIC PROGRAM
- EFFECTIVE AND CARING TEACHERS
- SAFE AND NURTURING CAMPUS
- AFFORDABLE TUITION
- SOLID CHRISTIAN EDUCATION
- 100% UC ACCEPTANCE
- 10:1 STUDENT-TO-TEACHER RATIO
- WASC ACCREDITED
- SENIOR SAT AVERAGE: 1370

ENROLLING NOW! K-12

Voted **#6 Best** Christian High School in CA

FOR MORE INFO



SCAN ME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213) 487-5437
NCAHUSKIES.ORG





제5차 글로벌복음통일미션 컨퍼런스 Global Reunification Korean Mission Conference

Bangkok 2024



세부안내/등록

www.gideonbrothers.org

www.tmtc.co.kr



주제 “디아스포라 복음통일연합방안”
“다음세대와 복음통일방안모색”

기간 _ 2024. 10월 29일 ~ 11월 1일

장소 _ **방콕한인연합교회**(신상태 담임목사)
63, SOI 44, PHATTANAKARN RD;
SUANLUANG, BKK 10250
(숙박장소_THAYA HOTEL BANGKOK)

대상 _ 담임목사 / 북한선교담당자 / 위 주제 관심자 모두
참가비 _ \$250(30만원)/1인

* 추가음선일정(11월 1일~3일, 탈북루트 치앙라이 외 1곳) _ 등록사이트 참조



주최 | 글로벌복음통일미션네트워크

협력 | 방콕한인연합교회

주관 | TMTC | Total Mission Training Center
(사)글로벌연합선교훈련원

협찬 | BELL INTERNATIONAL ACADEMY

기드온동작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기독교일보

문의 | 대회본부 (425)775-7477 | 개최교회 (093)139-6520 | 기타 (82)10-9294-3242